東亞日報

發行兼編輯人 印刷人 發行所 京城府花洞一三八番地 株式會社 東亞日報社 電話 振替口座京城三五五番
新聞代金 一個月 八拾錢 … 廣告料 …

青年의 氣慨가 如何오

無窮의 生보다는 瞬間의 有意한 死를 取할지어다

靑年에게 貴한 것이 무엇인가 苟々히 生을 盜하야 妻子로더부러 그 樂을 共히함인가 或은 胸中의 大理想을 懷하야 生命을 賭하고 그 實現을 期함인가 雙肩에 懸한 泰山갓흔 그 重大한 責任과 그 使命을 爲하야 生命은 姑舍하고 生命을 犧牲하고서라도 勇往猛進하는 그 氣槪인가 千萬衆目이 注視하고 千萬衆手가 指하야 待하는 그 囑托에 感激하야 生死를 不顧하고 突進하는 感激인가 吾人은 朝鮮靑年에게 問하고자 하노라 諸君의 就하고자 하는 바는 그 如何한 方向이며 諸君의 推하고자 하는 바는 그 如何한 生活의 標準인가 諸君에게 感激의 淚가 有하며 毅勇의 情이 存한가 靑年은 社會의 生命이오 社會의 動力이라 靑年이 進就的 氣象과 犧牲的 精神에 充實하고 豐富하면 그 社會는 將次 繁華와 光榮에 陸離한 光彩를 發할 것이오 靑年이 老衰하고 腐敗하야 退嬰에 苟安을 圖하게 될 것 갓흐면 그 社會는 衰殘과 頹落에 滅亡을 促하는 暗黑에 哭할 것이라 朝鮮靑年은 新年劈頭에 天地萬物이 新生으로 蘇하고 新生으로 進行을 更新하는 此時에 特히 此點에 猛省을 加할지어다 朝鮮民衆의 運命을 開拓할 者이 誰인고 그 暗昧를 打破하고 그 貧弱을 一掃하고 그 不和와 卑屈와 그 猜忌와 爭鬪와 그 無氣力과 無理想의 모든 頹落의 殘骸를 掃蕩하고 科學의 光明을 擧하며 富强의 權勢를 立하며 至誠을 人心에 發하며 至美한 生活을 營하야 一面에는 各個人으로 하야곰 各히 그 生에 榮光을 感하게 하며 他面에는 全社會를 率하야 發展과 幸福과 和平에 歡喜를 叙하게 하는 그 責任과 使命을 果然 誰에게 托할고 靑年의 우리는 想覺하야 볼지어다 諸君이 비록 現在에는 何等의 權勢가 無하며 何等의 地位가 無하며 一分의 金錢이 無하되 或五年後에 或十年後에 又或十五年二十年後에는 諸君이 此社會의 生活을 組織하며 此社會의 運命을 支配하는 主人翁이 될 것이니 其時에 當하야 諸君은 無力하다 하야 그 任을 辭할 수 無하며 無知하다 하야 그 命을 避할 수 無할뿐 아니라 諸君이 萬一 그 任을 回辭하고 그 命을 不受한다 하면 諸君은 맛참내 滅亡할 수 밧게 無하며 此地를 離別할 수 밧게 無하도다 換言하면 諸君의 希望하고 希望치 아니함에 不拘하고 此社會의 大經營의 大責任은 生活向上의 大使命은 必然히 諸君의 雙肩에 負擔이 될 것이라 然則 今日에 在하야 朝鮮의 運命을 苦慮하고 愛惜할 者는 그 實 老人이나 吾人의 先輩가 아니라 將來實地의 苦痛을 吾人의 皮膚에 切感할 바 吾人靑年의 自體이니 吾人이 此際에 特히 朝鮮靑年의 猛省을 促하는 所以가 엇지 他意가 存하리오 오즉 그 이와 갓흔 關係에 在한 까닭이로다 아ㅣ 朝鮮靑年이여 諸君의 責任이 이와 갓치 重大하고 그 社會에 對한 關係가 이와 갓치 密切하며 時勢가 또한 切迫하얏도다 諸君이 엇지 苟安을 盜하며 妻子로더부러 歡樂을 共히할 바ㅣ리오 吾人은 此點에 在하야 一種의 悲痛한 感을 抱하노니 安을 取하고 難을 避하며 家庭의 和樂과 妻子의 愛情에 心醉하는 것이 엇지 人情의 本然이 아니리오 만은 吾人의 處地와 境遇는 此를 不許하는도다 그러나 吾人은 … 朝鮮 모든 靑年에게 對하야 … 하노니 … 境遇는 吾人의 … 의 絶好한 機會이라 人生의 光榮이 엇지 安逸한 中에 發生하며 人生의 價値가 엇지 一家團欒한 區々한 生活에만 存在하리오 萬衆의 生活을 一層向上시기 爲하야 吾人의 肉塊가 必要하다 하면 此는 吾人의 感激할 바오 朝鮮民衆億萬代의 光榮을 爲하야 吾人의 苦難과 迫害와 飢餓와 凍寒이 必要하다 하면 아ㅣ 吾人의 安逸을 棄함이 吾人의 溫飽를 棄함이 吾人의 苟々한 愛情을 棄함이 엇지 吾人의 服膺을 棄함과 殊異할 바이 有하리오 吾人은 所謂 英雄을 崇拜하고자 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民衆을 爲하야 死하고 傷하고 그 血心을 潑한 志士와 傑士를 爲하야는 吾人은 感激의 淚와 熱淚를 不惜하노라 生의 價値는 生 그 自體에 存하는 것이 아니라 그 生을 雄壯하게 하고 深粹하게 하고 高大하게 하는 努力과 苦痛과 犧牲에 存在하는 것이니 英雄의 光彩와 英雄의 事業이 그 何에서 生하며 英雄의 光彩가 無하면 人生의 向上이 何로 外 結果하리오 吾人은 朝鮮靑年이 … 取하야 百年을 … 하는 것보다는 萬衆의 運命을 開拓함에 一力을 加하기를 바라노라 靑年諸君아 諸君의 所見이 果然 如何한가

現代政治의 要義 (四)

二、專制政治와 立憲政治 (續)

『疆雖亂也』라 長久한 時日에 盤根錯節한 制度와 文物은 道德으로 禮儀로 習慣으로 偉大한 壓力의 因習이 되얏나니 藥草도 오히려 除去하기 難하거든 하물며 偉大한 壓力이 有한 바 因習이리오 十萬의 大衆을 壓伏에 役하야 一時에 못질으는 것은 尋常茶飯의 事이지마는 一君主一帝王의 亂暴을 匡正하기는 措處하기는 實로 天에 上하야 星을 摘하는 것과 如히 難하야스며 此를 設或 除去한다 할지라도 一朝一夕에는 到底히 行치 못하고 반다시 彼亂暴한 帝王이 亂暴을 極하야 自滅한 後에야 비로소 만흔 犧牲을 提供하고 僅々히 些少의 功을 奏하며 此功을 收하는 것도 亂暴한 君主의 十人에 對하야 一人의 比例도 되지 못하얏나니 『弱한 者이여 너의 일홈은 女子이라』하는 말을 『弱한 者이여 너의 일홈은 民衆』이라 하는 말로 變할이 可할지라 歷史上 民衆의 存在는 얼마나 微弱하얏스며 民衆의 生活은 얼마나 慘憺하얏던가 紂가 天下의 民을 率하야 暴한지라 民이 從하얏스며 『네로』가 天下의 民을 壓하야 亂한지라 民이 또한 從하얏나니 紂도 帝王이며 『네로』도 帝王이라 民이 從함은 彼가 帝王인 所以이로다

그런즉 歷史上 帝王이 엇지 紂와 『네로』뿐이리오 … 帝王이라 人格과 智識과 思想에 在하야 或五十步나 百步의 差가 有할지라도 그 根本에 在하야 民을 奴隷하고 壓迫함은 總히 달지 아니하니 悲夫라 帝王의 偉大한 權能이여 萬代人生에게 무엇을 與하얏는고 萬代民衆은 此를 記憶하고 可히 忘却치 못할 바이로다 白起는 帝王을 爲하야 降服한 趙國의 軍士 四十萬을 一時에 못질럿고 項羽는 帝王이 되랴 하야 新安城南에서 秦兵의 降卒 二十萬을 또한 一時에 못질럿다 그리하고 始皇은 帝王의 地位를 萬代에 傳하랴 하야 『焚詩書坑儒生』하얏스며 興宣王도 舊邦의 舊道를 守하고 舊王家의 地位를 安保하기 爲하야 洋學의 基督敎徒의 七十萬名의 多數를 虐殺하얏나니 東西古今을 通하야 如斯한 事實이 엇지 以上에 擧한 것뿐이리오 無時不起하고 無處不在한 바 戰場에서 斃하는 兄弟도 帝王의 아들이며 三冬에 凍하는 父母와 三春에 饑하는 妻子도 또한 帝王의 臣民이라 그런즉 萬代를 繼紹하야 休치 아니한 此事實은 果然 民衆으로 하야 忘코자 하되 能히 忘치 못하는 紀念事業이로다 古人이 詩를 有하되 「愼知生男惡、反是生女好、生女猶得嫁比隣、生男埋沒隨百草」라 하얏나니 그 絶痛한 情曲은 大衆의 慘狀을 善形容하얏도다 男子를 生하면 戰場에 死하야 沙場에 埋沒하나니 그 存과 歿을 知치 못하고 그갓 依閭의 望에 眼孔이 穿할 뿐이라 그러하나 女子를 生하면 比隣人의 家에 出嫁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時々로 來往이 有하야 相親相愛할 수가 有하도다 生男이 惡이 아니리오 엇지 生女가 好이 아니리오 그러하나 女子를 生한들 엇지 반다시 父母兄弟의 歡을 承하고 相逢相對의 機를 得함을 得하리오 일즉 十字軍戰爭에 娘子軍의 鮮血을 見하얏스며 今世에 또한 女子의 犧牲을 要求하야 마지 아니하나니 女子도 帝王의 目的物이 된 男子와 달지 아니하도다

『大剛則折』이라 帝王의 高壓的 壓力이 中世紀에 至하야 最絶頂에 達하니 柔順과 服從으로 美德을 삼던 民衆들은 最後의 狹路에 入하얏고 그 以上은 더 柔順할 道가 杜하얏도다 坐하라 하면 坐하며 立하라 하면 立하야도 滅亡이오 坐하야도 滅亡의 魔手가 그들의 生命을 咀呪하고 그 生活을 破壞하니 如何한 殘命은 오즉 反撥의 彈力을 招來할 뿐이라 엇지 然치 아니하리오 孔明이 일즉 云하되 『敵을 伐하야도 亡할지오 敵을 伐치 아니하야도 또한 亡할지니 坐하야 亡을 待하는 것이 엇지 伐함에 若하리오』하얏나니 國家던지 個人이던지 此를 莫問하고 形勢가 玆에 至하면 다만 彈力의 反撥이 來함은 必然한 事이라 그런데 中世紀末에 在하야 民衆의 反撥的 彈力은 實로 커틀의 新生命을 開拓하는 福音이 되얏스며 그 滅亡의 魔手를 驅除하는 快斧鉞이 되얏도다 此時에 在하야 만일 反撥의 彈力이 無하얏스면 果然 世界의 國家는 發하얏고 民衆은 滅하얏슬지라 反撥의 彈力이 無하얏던 東洋의 國家이며 民族의 現狀을 觀하라 엇지 然치 아니한가 그러하나 西歐에 在하야는 專制政治에 對한 反撥이 起하얏나니 그 彈力는 極히 猛烈하얏도다

「小」의 暗影 (七)

瞬星生

哲秀는 부득히 靜子를 火爐 겻흐로 갓갑게 안치고

「다른 말이 아니라 오늘 韓從男이하고 커피를 가치 먹엇소。그런데 韓君의 말이、自己 다니는 會社 社長에 黃富成이라고 하는 사람이―웨、언젠지 新聞에 그 사람 辱이 펵 나지 안엇소……아、참 그때는 아즉 靜子가 시골잇슬 때지。몰르오?」

「비어는채……」

「그럿소? 그러면 할수업스나 左右間 그 黃氏네 집에서 家庭敎師를 求하는 中이란 말이요。그런데 韓君이 꼭 靜子를 薦하고 십다 하는구려。그러나 쎡 시원한 이야기가 아닌 까닭으로 나는 不分明한 對答을 해두엇소만은 그야 待遇라던지 其他凡節은 程度以上일는지도 모르겟지만、그 집안 家庭이 말 아니 낫가요」

「家庭이 말 아니라니、웨요?」

「靜子가 그 新聞을 보지 아니 햇다 닛다 할 수 업소만은 그야말로 참 말 아니오。」하고 新聞에 낫던 記事를 記憶나는 대로 이야기 햇스니、그 要領을 말하건대、黃富成이라는 者는 本來 말할 수 업시 구차한 자구려 징사로 出世를 하야 一代에 屢萬의 財産을 모흔 터이라 實業界에는 果然 一方의 雄將이라 하겟스나 이러한 사람에게 대개 한가지 조치 못한 버릇이 잇스니 甚히 色을 조와 한다。그도 或 노는 거집을 데리고 작란을 한다던지 妾을 둔다던지 그뿐만 하면、當代의 豁節으로는 例事의 일이라 하야 容恕할 도리도 업지 안아 잇겟스나、이 者의 고약한 버릇은 自己 집에 와서 일 보는 사람으로서 조금 얼골이 꼴 드러나 한 女子이면 針女건、종자건 반다시 한번은 건드린다。그것도 罪 한번、만하야 두번、세번도 하는 일이 업고 그 後에는 쇠침이 뚝 떼고 돌며 다보지도 아니하는데、그 最初에 건드리는 手段으로 말하면 無法하다 할는지 亂暴하다 할는지、腕力을 쓰는 것이 常例요、그러도 아니되는 때에는 麻醉藥의 힘을 비는 일이 잇다 한다。그리하야 그 辱을 當한 사람의 父母親戚과는 間題가 이러나나 黃哥의 집에 專屬되야 그런 事件만 專門으로 하는 못된 辯護士가 잇서、언제던지 귀여러진 돈 몃 푼으로 흐지부지 結末을 맷게 하는 까닭으로 그러한 罪惡을 犯하면서도 이 때지 한 번도 裁判을 맛난 일이 업다 한다。開明한 오날날 天地에、꿈에도 생각지 못할 이러한 事實을、仔細히 말하야 들니고、「그야 新聞記事라 多少誇張해 쓴 點도 잇겟지。그러나 그 이야기를 設使 半은 거짓말이라 하고 半만 밋는다 할지라도 놀날 일이 아니오 엇덧소? 靜子」하고 빙그레 우스면서「가볼 생각이 잇소?」

靜子는 가마니 생각하고만 잇고 이말에 對하야는 엇더타 對答을 하지 아니한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哲秀는 唐荒히 作消하고 『靜子가 이게 다 작란의 말이야』하며 … 다시 靜子의 意見을 드르던이 … 必要도 업지 그 常席에서 곳 拒絶해버릴 外갓스나 하도 韓君이 熱心으로 勸하는 것을 본즉 이것이 必也 曲折인 일이란 말이요 그 사람의 일이 낫가 必是 무슨 적은 野心을 이리켜 또 속금처린 늘 하라는지도 모르겟스나 그 쇠에 넘어가서야 될 말이요 그러나 그 常席에서 斷然코 拒絶을 해무인을 주면 그 者의 일이라 아모리 집안 사람에게는 秘密히 해달라 하기로 드를 理가 잇소 必然 나 업는 새에 와서 죄다 재질된 것이요 그리고 보면……」하고 靜子와 얼골을 마조보면서

「그러치 안소 사람이 구치인 아ㅣ 무얼 나는 편차나 左右間 구찬는 쏫이 걸엉하、하、하。나야 편찬치만 靜子가 苦生을 바들터이지。그런 까닭으로 韓君에게는 엇더케 우물쭈물 햇스나、길에서 곰々 생각을 해보아도 별수가 업구려。結局 이야기 아니할 게케도 못되고、이야기를 하면 必然 가라고 할 것은 定한 노릇이라。그것을 靜子는 실타 하고 나는 또 靜子의 말을 贊成하면 뒷疑心에 疑心이 겹처서 또 一場風波가 날 것은 死치 못할 것이니、그러고 보면 또 母女가 들이뜨러서 靜子를 들볶을 것이라 到底히 벗어나지 못할 것이나、그러나 이게 말하면 一生의 重大한 境遇닛가 靜子도 十分決心을 가지고 어듸 와지던지……」하고 말을 하는 中에、「잠간 가마……」하고 靜子는 무슨 소리를 듯고 귀를 기우린다。

「무어요」하고 哲秀는 의심내여 뭇는다。

「누가 온 모양이 낫가……」

얼른 아라채리자 벌덕 이러나서 미다지를 획 여러 제치매 마루 부납門에 이마 부듯는 소리가 나더니 쿵々々 逃亡질치는 발소리가 안房 뒤를 지나 머리房으로 스러진다……

東亞短評

◇問題 의 潛水艇比率은 結局 今次會議에서 決定되지 못하는 貌樣 英佛의 互相讓步가 緊要

◇潛水 艦艇의 比率이 決定되지 못하면 主力艦制限도 效果가 甚히 疑問인즉 此의 失敗는 遺憾

◇今後 潛水艦의 無警告商船擊沈은 禁止된 貌樣인즉 此가 實行되면 戰爭慘禍의 一部는 可免

◇露國 의 領土保全이 決定되는 듯하나 一步를 更進하야 露國을 招請함이 豈非上策

◇極東 露國의 形勢가 又復 大混亂을 起할 變態가 有한즉 此에 關한 問題를 徹底解決함이 緊要

◇智多 代表가 華府에서 排日宣傳을 盛行함을 因하야 遲々不進의 大連會議는 不攻自破의 勢

◇華府 會에서 日露關係에 何等解決을 與치 못하면 領土保全의 議決으로 局面轉回는 困難

◇中國 讓步로 山東問題解決의 曙光이 有하다 함은 電報인가 目下形勢로는 會期中 解決이 困難

◇南北 統一實現의 自信을 聲明한 梁士詒內閣은 北方의 爭奪로부터 反히 攻擊을 受할 形勢

◇現代 의 難局을 收拾할 者 誰何인가 四百餘州가 偉人을 要求함이 益切하되 偉人은 何故不出

朴熙秉洋靴店

아아여보십시요이것보시요

舊歲暮大廉賣出한다합니다

價格低廉하고物品良好하기는江湖諸賢의 …

… 大割引을 하고 하금히 下命하시옵

京城寺洞二十三番地 振替口座京城一〇〇九番

友助堂時計鋪

京城南大門通五丁目

電話 二〇五番 振替 一八九五番

壯筋骨 補氣血

大力丸

此大力丸의 偉大한 效力은 百에 一失이 無하야 奏效如神인바 老少間 助陽回春에 特異한 功效가 有함

(主治効能)

定價 一個月分 四圓五十錢 二個月分 八圓

京城西小門外 洪濟堂藥房

正則講習院 補缺生募集 京城貞洞一四

紅及杉松單笥材料(三分五厘分板)

並朝鮮松原木多數入荷하얏소 開業自祝키 爲하야 特히 安價販賣할 數量에 限이 有하오니 至急用命하시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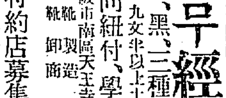
京城水標町五十四番地 電話 四一四番 振替京城 二九六九番

中村材木店

內鮮人向 雜貨卸小賣 京畿道安城 中村重三商店

謹啓者本人이 今番에 … 東亞運送店 … 愛顧하시와 …

東亞運送店 主任 金兌權 (武京)



고무經濟靴宣傳

白、紫、黑、三種、裏布張高級品 九文半以上十一文半迄品揃

紳士向紐付、學童用、五色豆靴、各種

經濟靴 便利靴 製造 卸商 大阪市南區天王寺勝山通貳丁目 久津和護謨商會 振替大阪五一七一〇番

特約店募集 營業案內送呈

仁川府仲町三丁目

和洋雜貨 朝鮮靴 洋服 各種 外套 都散賣 永興泰 主 金興植

但 地方은 代金引換함

京城府公平洞七十八番地(종로통이전골)

西洋料理 太西館

스키야기도이소 李德俊

아이안 最新式機械模樣附

薄利多賣主義 アイアン高級萬年筆 破格大特價提供

製造家에서 需用者에 直接廉賣=都賣問屋과 小賣店과=二個所利得을 省함 (小賣價革命)

市價五六圓의 萬年筆이 僅히 貳圓四拾錢 (如斯히 廉價販賣는 實로 左記의 理由에 在함)

百回空論은 一次實行만 不如함 (弊社率先하야 直接廉賣를 開始함에 社會要求에 投合하야 日日多大의 注文을 接함)

萬年筆에 高價이얏던 것은 昔事 今日은 頗히 廉價로 되오

廉價하게 되는대 何故로 價가 落치 안는가 是皆販賣者의 暴利의 結果

▲アイアン(아이안)三十二號 製作實費明細表

▲アイアン(아이안)三十七號 (大軸) 安全裝置인크止式 正十四金펜(責任保證付) エボナイト(에보나이트)軸 市場價格八圓內外의 것 現圖대로 十八金張飾環二個付 (인크包容量多大也) 軸徑五分七厘丸 大特價金四圓二十錢

▲アイアン(아이안)三十一號 安全裝置인크止式 正十四金펜(責任保證付) エボナイト(에보나이트)軸 市場價格五圓內外의 것 現圖대로 十八金張飾環一個付 軸徑三分八厘丸 大特價金二圓四十錢

▲アイアン(아이안)三十六號 (最新流行型) 安全裝置인크止式 正十四金펜(責任保證付) エボナイト(에보나이트)軸 市場價格七圓內外의 것 現圖대로 十八金張飾環一個付 鞘帽菓子付 大特價金二圓二十錢

▲アイアン(아이안)二十九號 安全裝飾인크止式 正十四金펜(責任保證付) エボナイト(에보나이트)軸 市場價格三圓五十錢의 것 現圖대로 軸徑三分五厘丸 大特價金一圓七十錢

▲アイアン(아이안)四十號 本品은 內部螺旋式이니 펜尖은 常히 인크中에 잇슴으로 使用時 振出하는 手數가 업슴 綠川式 正十四金펜(責任保證付) エボナイト(에보나이트)軸 市場價格七圓內外의 것 現圖대로 十八金張飾環一個付 軸徑三分八厘 大特價金三圓二十錢

▲アイアン(아이안)三十五號 十八金張唐草模樣付 安全裝置인크止式 正十四金펜(責任保證付) エボナイト(에보나이트)軸 市場價格四圓內外의 것 現圖대로 軸徑三分 大特價金一圓九十錢

弊社責任 ◎本品은 御買上後 貴意에 不適한 時는 即時返品 次第 他品과 交換 …

高級アイアン(아이안)萬年筆은 滿天下의 人氣를 集中함

◉注文時는 必히 特價及番號를 記入하시오

送料…一個에 金四錢 (注文金五十錢以上은 送料全部弊社負擔함)

東京市神田區神保町

萬年筆本舖『아이안』アイアン 廣業社製作所

電話長神田四四一一番 振替東京二〇五六〇番

海軍條約公表期

最高幹部側의 言에 依한즉 華府會議는 不遠閉會할터이라 云하는대 總會議는 想必今週末에 開할터이며 五個國海軍條約은 其時에 公表할터이며 中國에 關한 九個國條約을 提出하기 爲하야 來週에 更히 總會議의 開催가 有할터인대 右二次의 總會에 依하야 各國委員은 其任務를 了하고 會議에서 議決한 各條約에 調印하기 爲하야 關係各國議會의 批准만을 必要로 하게 될터이며 各國委員은 今에 太平洋條約은 濠洲及新西蘭을 包括할지나 日本本土를 除外하는 解釋에 同意함과 如한 此解釋은 想必米國上院의 太平洋條約批准을 容易케 할터이더라(倫敦六日發)

重要項目十二條
海軍制限五國條約에 包含된者

海軍制限에 關한 五國條約은 二十三個條로 成한 長文인대 同條約은 左의 諸項을 含하얏더라

第一 海軍休日期間中各國의 取할 態度에 關한 規定
第二 主力艦의 比率에 關한 規定
第三 新建造艦의 大及主砲에 關한 規定
第四 噸數의 算定方法에 關한 規定
第五 補助艦建造에 關한 細目
第六 航空母艦에 關한 協定
第七 戰時商船에 關한 規定
第八 私設造船所에 關한 規定
第九 潛水艦使用에 關한 規定
第十 締盟國이 互相交戰國이 되는 時의 規定
第十一 主力艦縮少變更에 關한 規定
第十二 太平洋防備制限에 關한 協定

右는 締盟各國의 承認을 得한 後本會議에 外發表될터이더라(華盛頓五日發)

協定成立事項

當局者電에 依한즉 海軍制限會議는 大體의 骨子協定을 了하야 會議는 不遠閉會될터인대 細目에 就하야 海軍專門委員會에서 協定이 成立된 者는 左와 如하더라

一、主力艦은 佛伊의 正式承諾에 依하야 英米十、日本六、佛伊三、三의 比率로 協定이 成立
二、十年間의 造艦休息도 協定이 成立
三、航空母艦은 各國이 共히 增噸하게 되야 英米는 十三萬五千噸 日本은 八萬一千噸 佛伊六萬噸으로 協定이 成立
四、太平洋防備問題도 協定이 成立
五、廢艦의 處分은 戰鬪에 使用치 아니함을 條件으로 하야 自由로 處分함을 得하게 됨

結局未決의 問題는 補助艦及潛水艦問題뿐이더라(東京電)

英佛紛爭稍緩和

海軍全權委員會에서 採擇한 潛水艦問題에 關한 決議案最終의 規定文中에는 佛國委員의 同意에 依한 條項도 含하얏는대 右는 一九一四年으로부터 一九一八年外지의 戰爭에 依하야 經驗함과 如히 文明諸國의 期待에 反하야 潛水艦을 商船攻擊에 使用함이 不可能함이라 云함에 因함이라 此潛水艦에 關한 規則의 管理及實用의 全部를 否認함에 因하야 潛水艦問題로 惹起한 英佛間의 紛爭은 全然消散됨과 如하며 潛水艦問題討議中加藤全權은 潛水艦은 對米의 目的으로 使用함을 得하는가 否하는가 疑問을 發하얏는대 英國의 意見은 此는 協定의 精神에 反한다 함에 對하야 加藤全權은 會議의 一致를 保키 爲하야 其質問을 撤回하얏더라(華盛頓六日發)

商船襲擊禁止案

商船에 對한 潛水艦의 襲擊을 禁止하는 協定에 就하야는 締約國以外의 諸國에 其贊同을 求하얏더라(華盛頓六日發)

山東再延期事情

日本最後의 案으로 하야 鐵欵는 十五個年後는 六個月의 豫告로 全部를 返還하되 運輸主任會計主任은 日本人으로 하고 其他細目은 北京에서 決할事를 提議하고 中國은 國庫證券으로 支拂한다 하야 讓치 아니하얏슴으로 遂히 中國은 正式으로 英米의 仲裁를 提議한바 日本은 少하야도 現狀으로는 其必要가 無하다 하야 「휴스」「발포아」兩氏의 出席을 求한다 하얏스나 此亦日本이 同意치 아니하야 交涉은 成立치 못하얏더라(華盛頓六日發)

◎中國은 昨日英米와의 交涉을 求함을 主張하얏스나 日本이 此를 拒絶하야 結果交涉은 再히 無期延期가 되얏더라(華盛頓六日發)

中國全權의 聲明

山東問題에 關하야는 六日日中兩國全權間에 一時間半이나 會議한 後解決의 失望에 歸함과 如한대 中國全權은 聲明하야 曰

膠濟鐵道買收費를 現金으로 支拂코자 하는 中國의 計畫에 日本이 直히 承認치 아니하면 商議는 遂히 終結을 告하리라

하고 又此에 「휴스」「발포아」兩氏의 斡旋을 得치 못하는 限에는 再次日中會議를 開키 不能하다 하고 又顧維鈞氏는 曰

中國은 斷然히 中借款으로서 膠濟鐵道의 買收에 充코자 하는 日本의 提案을 拒絶하얏도다 但現金을 拂할 一部로 하야 即時三千二百萬圓을 支拂하는 件은 讓步하얏다 云하얏는대 此에 對하야는 日本은 最初의 主張을 極力固執하리라고 解하더라(華盛頓六日發)

『中國案處理失當』
中國顧問『심손』氏의 寄書內容

中國政府顧問「심손」氏는 華盛頓에서 各地新聞에 寄書하야 華府會議의 中國問題는 其處理의 方法이 全然失當한 事를 論하고 且曰 中國復興策에 就하야는 極히 貧弱한 成績을 擧함에 不過하얏도다 各種의 宣言又는 保障條約類等은 全然無意味한 者이라 且中國의 獨立을 今日以上侵害키 不能하게 됨은 旣히 一年前의 事이라 云하고 又氏는 鐵道問題의 會議에 外注意를 引起치 아니한 事와 國際財政問題의 會議에 外趣味를 示치 아니한 事를 斷言하야 今後五年間은 必然的으로 激烈한 衝動을 來케 한 結果改善을 見함이 確實하다 述하얏더라(倫敦六日發)

中陸軍縮少提議
米國全權『언더우드』氏

米國全權「언더우드」氏는 五日午前極東問題委員會에서 中國關稅에 關한 特別委員會의 可決한 決議를 報告하고 中國의 維持하는 陸軍은 巨大하야 其大部分은 中國各地의 中國陸軍首腦者라는 者가 此를 支配하는 바 此等軍隊는 公共收入을 枯渴케 함이 甚한즉 此의 救濟策으로 하야 中國陸軍을 縮少함은 確實히 中國의 政治的統一及經濟的發展만 아니라 中國의 財政的復興을 保함이 될지며 從하야 中國關稅特別委員會는 華盛頓會議가 中國에 對하야 陸軍의 經費를 輕減하기 爲하야 同政府에 速히 有效한 手段을 取할을 勸告하는 決議를 通過함이 하고자 提議하노라 說하얏는대 此에 對하야 中國全權顧維鈞氏는 中國陸軍을 縮少코자 하는 希望은 全然中國人民及政府의 希望과 一致한다 說하야 中國은 如此한 決議는 最良한 思考에 依하야 促한 바 됨이 確實한 故로 此決議에 對하야 異議가 無하다 하고 中國은 右決議案에 對하야 投票에 加함에 當分應치 못하나 其精神은 多하다 說하얏는대 右決議案은 關係國委員의 議에 再次附議하야 此가 採用되도록 適當한 形式으로 再次提出함을 希望하더라(華盛頓五日發)

最高會六日開催

最高會議의 本會議는 遂히 六日에 開會되야 議場의 周圍에는 多數의 憲兵이 配置되야 警戒가 嚴重하얏고 入場許可證에 對하야도 細密한 檢查를 行하얏더라 開會에 際하야 會場의 外部에는 群集한 大群衆은 會議에 列席한 委員에 向하야 歡聲을 呼하얏는대 議場에는 佛國首相「색리안」氏右便에 英國首相「로이드쪼지」氏其左便에 駐英米國大使「할비」氏가 着席하고 英、伊兩國委員의 越便에는 日本、白耳義兩國委員이 着席하얏더라(카ー느六日發)

歐洲改造熱充滿

──最高會議는 六日朝二時間에 亘하야 獨逸에 對한 바 各國委員은 賠償問題及歐洲再建設問題를 處理하는 熱이 充滿하얏더라(카ー느六日發)

英愛協定秘密會

愛蘭議會는 六日朝英愛條約에 關하야 秘密會議를 開하얏는대 會議는 五日兩派의 代表者各九名으로 成한 非公式委員이 討議한 結果를 聽함에 至한 것이라 司令官「오ー다피ー」氏의 言에 依한즉 兩派가 同意한 問題中에는 大統領의 干涉을 保留하는 協定을 行하야 새愛蘭의 分裂을 避하는 事項도 有하다 하더라(倫敦六日發)

『떼밸레라』氏公式辭職

「신펜」議會는 公式으로 「떼 밸레라」氏의 辭職을 發表하얏더라(倫敦六日發)

主義固執의 檄文

──「떼・밸레라」氏는 布告를 發하야 愛蘭人에 對하야 極力其主張을 固執할事를 求하야 最後의 機會에 臨하야 形勢의 挽回를 圖할지라도 遲치 아니하다 聲明하얏더라(倫敦電)

吳、梁氏討伐宣言

吳佩孚氏는 梁士詒總理의 山東交涉讓步態度에 怒하야 此를 口實로 梁士詒의 討伐을 宣言하얏더라(上海七日發)

安福派特赦反對
吳佩孚氏交換條件要求乎

吳佩孚氏는 段芝貴以下安福派元首의 特赦에 大反對를 唱하야 在北京代表에게 北京撤去를 命함과 共히 中央과의 關係斷絶을 聲言하얏는대 右는 何等의 交換條件을 得코자 함이리더라(上海電)

三十八團體의 排日
一月一日에 運動開始

卅八團體代表는 一日以來總商會에 會合協議하야 再次日貨排斥의 氣勢를 煽動하얏더라 其代表三十餘名은 一日에 非貨同盟의 意見을 總商會에 告知하기로 하얏다가 忽然히 豹變하야 二日은 全國의 商界學界各會聯合會에 對하야 速히 日貨抵制準備를 公然實行할事를 通牒하얏스며 就中或者는 朝鮮亡國史를 小冊子에 印刷하야 學生에게 興함事는 成은 朝鮮、安南、波斯의 慘狀을 小給도 하야 各鄕村에 販賣하며 又此를 通俗으로 하야 各村落에 貼付하자는 者가 有하얏는대 一切贊成을 得하얏다 하며 三日은 朝鮮安南等의 亡國慘狀을 小學校의 敎科書로 編成할事를 敎育會에 申請하기로 決하얏다 하며 其他各地方으로부터 三十八團體에 加入하기를 申請한 者가 不少하며 且華盛頓會議에 外失敗한 以上將來中日戰爭은 可히 免치 못할지라 此時에는 我等은 決死隊의 一員이 되기를 願하고 賣國奴가 되기는 願치 아니하노라 高唱하는 者도 有하얏는대 彼等은 各省內에 日貨抵制를 唱하야 日本의 銀行紙幣授受拒絶을 運動하는 中인 狀態인바 昨今各處에 揭揚된 白色旗는 日本人을 咀呪하야 寒風에 飄搖하는 感이 有하더라(天津五日發)

酒類專賣
臺灣總督府

臺灣總督府에서는 十一年度豫算中臨時部에 酒類專賣局費로 四十二萬三千四百三十五圓을 計上하야 遂히 七月一日부터 實施하게 되얏는대 右는 日本最初의 事業이라 政府當局에서도 一時考慮의 餘地가 有하다 하야 容易히 許可치 아니하얏스나 結局臺灣에 酒의 專賣를 實行함은 比較的施行키 易하며 一方大藏省에서는 日本內地에서 此를 施行하자는 內議가 有한 時인 故로 遂히 此를 認함에 至한 者인대 뎌도 酒類專賣를 日本內地에 施行할 目的에 依하야 大藏當局에서도 酒의 專賣에 關한 調查를 續行하야 臺灣의 成績如何에 依하야 大正十二年度에는 具體案을 發表할터이라 하며 臺灣의 酒의 專賣는 아직 其施行方法이 決定치 못하야 今에 此를 詳細히 報道하기 不能하나 原則으로는 同局에 從來醸造하든 再製酒及紅酒醸造의 如함은 勿論日本內地及朝鮮、樺太並外國으로부터 移入하는 酒類의 何種됨을 不問하고 一般의 權利를 政府에 屬케 하야 此의 製造販賣를 行코자 함이더라(東京電)

關東廳豫算

關東廳特別會計豫算은 歲入出을 合하야 一千五百九十二萬九千八十七圓인대 昨年에 比할 時는 十四萬一千五百六十三圓이 減少된 바 右는 郵便電信電話의 收入減少百三十七萬七千十圓이 主要한 者이며 又前年度剩餘金繰入六十七萬七千圓과 印紙收入減少等에 基한 者이나 此의 補塡策으로 公債百二十四萬三千圓을 新設하고 又酒稅新設煙草稅新設等에 依하야 難辛히 收支를 償함에 至하얏는대 此의 臨時經常部歲出을 擧하면 次와 如하더라

歲入	經常部	九、五五四、二七一圓
	臨時部	六、三七四、八一六
	計	一五、九二九、〇八七
歲出	經常部	一二、〇三五、四三六
	臨時部	三、八九三、六五一
	計	一五、九二九、〇八七

이더라 又大正十一年歲出豫算中新規施設及前年보다 特히 增加를 要하는 者中主要事項及金額을 擧하면 左와 如하더라

一、一般行政事務增加에 伴한 職員增加에 要하는 經費 百二十二萬三千圓
一、土地登記施行에 伴한 職員增加에 要하는 經費 十一萬七千圓
一、煙草消費稅施行에 伴하는 經費 八萬三千圓
一、醫院費及傳染病豫防費新規計上 四十六萬一千圓
一、警察充實에 因한 職員增加에 要하는 經費 二十二萬九千圓
一、小學校學級增加에 伴하는 經費 十二萬一千圓
一、工科大學設置에 伴하는 經費增加(大連工科學堂昇格) 一萬八千圓
一、欠損補塡金增加 廿二萬圓(東京電)

滿洲米禁輸出
正式으로通告

中國側에서는 最近日本商人에 對하야 滿洲米의 輸出은 永續的의 許可로 認定하얏스나 商人等은 永續的을 願하는 者가 多數에 達하는 狀態이더니 今回中國官憲은 日本領事館에 對하야 正式으로 米穀輸出不許可를 通告하야 왓는대 此에 依하면 米穀의 輸出期限은 旣히 滿了되얏고 且此에 關한 一般的問題는 北京에서 交涉함이 無妨하다 하얏더라(奉天電)

水田의 改良과 開墾
土地開墾事業에 就하야
總督府土地改良課事務官 土師盛貞

朝鮮開發上必要한 事業과 施設은 不少하나 土地改良事業이 其一이라 함은 何人이던지 異論이 無한지라 朝鮮으로부터 日本에 旅行하는 者는 우선 車窓으로부터 見하더라도 土地에 農業上利用에 對하야 朝鮮은 日本內地에 劣하야 何等의 方法을 講할 必要가 有한 事를 感케 하는도다 朝鮮의 耕地는 約四百二十七萬町步 畓이 百五十四萬餘町步로 全面積에 對한 比率이 比較的少할 뿐 아니라 畓의 大部分은 灌漑狀況이 優良치 못하니 即畓耕面積百五十四萬餘町步中

灌漑設備를 有한 者는 (一)在來의 堤堰洑에 依한 者가 廿九萬餘町(二)水利組合에 依한 者四萬二千餘町(三)官의 認許를 受한 者個人經營에 依한 者八千餘町 合計三十四萬餘町步로 畓의 全面積의 約五分之一에 不過한 狀況이라 玆에 畓에 關한 二問題가 生하나니 一은 既成畓의 改善이오 二는 畓의 新設이라 朝鮮의

畓의 收穫이 每一反一石未滿임은 籾種、法等의 不充分한 一因이나 그러나 灌漑設備의 不良도 其有力한 原因이라 旣成畓의 五分之四大部分은 用水를 專혀 天水에 仰하는 터인즉 一朝旱魃에 際하면 損害가 忽來하는 危險狀態에 在하야 農民은 此旱害의 苦痛을 受하는 中이라 故로 旣成畓의 灌漑設備를 改善할 事는 農家保護를 爲하야 緊要한 事며 又는 米收增額을 爲하야도 考察치 아니치 못하리라 次에 更進하야 現在의 畓面積으로는 朝鮮

產米政策 上充分하다고는 言키 不能함으로 更히 新畓을 開設하야 耕地의 擴張을 圖함도 必要가 有하다 日本의 米政策은 朝鮮產米增殖計畫의 上에 其重要한 遂行事項으로 旣成畓의 灌漑改善及畓의 擴張을 擧한 것도 以上의 理由에 基한 것이오 朝鮮總督府土地改良課에서 土地改良事業을 新設한 것도 此二事業을 行케 爲함이라 朝鮮產米增殖計劃의 主要한 施設은 (一)基本調査 (二)總督府及地方廳에 在한 指導技術員의 設置及(三)助成金의 交付 (四)事業促進에 關한 特許機關의 設置이라 此等에 對하야 極히 大한 說明을 爲하고 且執行開始後의 狀況을 略述하건데

助成金의 交付 畓의 灌漑設備의 改善을 하는 者에게 二割以內、田畓을 變換하야 畓으로 하는 者에는 二割五分以內、田以外의 土地를 畓으로 하고 又는 海面水面을 埋立하야 成畓하는 者에는 三割以內를 各工事費에 對한 比率로 金額을 定하야 交付하는 것이오 此等事業에 伴한 附屬工事에 對하야도 亦同樣의 例에 依하야 補助金을 交付하는 것이라 其詳細는 土地改良事業補助規則에 規定하얏슴으로 說明을 省略하는 바이다만

特히 注意를 要할 點은 事業을 行하면(甲)此補助金交付를 受하는 것이 當然히 아니라 豫히 補助金交付申請을 하야 交付의 指令을 受한 者에게만 此를 交付하는 것이니 工事를 着手한 者라도 假令此日에 補助金을 交付할만한 것인즉 豫算에는 制限이 有한 故로 不得已한 事이며 又小面積의 事業에 對하야는

補助金을 交付치 아니하는 事는 規則第二條에 明示하얏도다(乙)補助金은 事業에 關한 總費用에 對하야 給與하는 것이 아니오 工事에 直接必要치 아니한 者의 買入代金資金의 利息等에는 補助하지 아니하는 것이다(丙)原則으로는 工事의 竣功한 時又는 年度의 終了한 後가 아니면 補助金을 支拂치 아니하나 水利組合等의 公共團體에 對하야는 例外로 하야 竣功前又는 年度終了前에도 支拂하게 되얏도다 以上의 手續에 依하야 交付指令을 與한 補助金額은 大正九年度에 五十萬圓이엇스나 大正十年度의

政府豫算은 九十一萬圓이라 十年度는 既히 交付한 者도 有한 바 此豫算은 過少하야 朝鮮에 現在하는 土地改良事業에 對한 補助金으로는 適應치 아니함으로 今後大히 增額할 必要가 有하도다(未完)

保留鑛開放에 就하야
川鍋鑛務課事務官談

總督府에서 保留金鑛으로 每年一個所五萬圓의 豫算으로써 多年採鑛하든 咸南新興、慶北尙州、平北義州三個所中義州는 往年採鑛을 中止하고 新興、尙州兩鑛도 今에 至하야 埋藏鑛脈과 鑛量도 推定함을 得하야 朝鮮內金鑛中에 良鑛이라 確定하얏슴으로 當局은 其處分에 就하야 考慮中이든 바 今番此를 開放하야 民業에 移코자 計劃中인대 某社와 加할는지 拂下價格은 果然幾許가 될지 未知이나 自然評價가 低下되는 바 或은 委任經營又는 如한 條件으로써 開放할 것이라 傳하는대 此에 就하야 鑛務課川鍋事務官은 語하야 曰 諸委員이 擧皆贊成하얏슴을 見하야 鑛業調査會에서도 開放問題에 就하야 民業에 移함이 可하다 하얏스나 아니라 此를 民業에 移할 方針은 旣定事實인즉 其方法은 確立되지 못하얏다 卽具體的方法은 鐵道其他와 如한 바 委任經營과 如함은 不適當하다 思하는 바이오 拂下希望者는 多數임과 如한대 充分調査研究한 後具體的方法이 決定되리라 하노라 云々

日本金利低下

日本各地歲末金利는 決濟資金의 需要가 旺盛하얏슴으로 短期를 年二月의 金融緩漫時五六厘에 比하면 昨日物도 三錢六厘를 唱하야 約六七倍를 示하야 空前의 高利를 唱함에 至하얏든 바 越年後에 資金의 回收가 迅速하고 兌換券도 歲末에는 十五億五千萬圓의 膨脹이든 바 四日現在에는 十四億四千萬圓으로 約一億一千萬圓이 收縮되고 『콜』無條件은 東京一錢七厘 翌日物東京一錢六厘大阪二錢으로 約半額이 低下하얏다더라

客年海外貿易

大藏省發表十二月中의 外國貿易은

輸出	一四五、五一四、〇〇〇
輸入	一六〇、二五五、〇〇〇
差引入超	一四、六四一、〇〇〇

인대 此를 前年同期에 比하야 輸出八千七百二十五萬六千圓 輸入一億四千五十一萬二千圓 差引一千七百二十五萬六千圓의 入超이더라 又一月以降十二月에 至하는 滿一個年間의 貿易累計는 左와 如하더라

輸出	十二億五千二百廿四萬一千圓
輸入	十六億一千二百八十七萬圓
差引入超	三億六千六十二萬九千圓

(東京電)

朝郵各地回航

朝鮮郵船會社에서는 昨年末遞信省에서 日本不開港地에 對하야 回港의 認可를 受하야 瀨戶內海沿岸의 尾道、小豆島、引用、坂出、高松等에 二回에 亘하야 七百噸級의 汽船으로써 朝鮮物資를 輸送中인대 最近麗島方面에서도 同航을 希望하야 朝鮮米豆를 輸送하고 歸航에 [illegible]器를 移入코자 目下調查中이라더라

鮮銀名古屋支店

朝鮮銀行에서는 昨年來朝鮮郵船會社의 橫濱航路開始以來名古屋市와 淸水間等東海道側과 朝鮮과의 直接貿易이 旺盛함으로 爲替取扱이 激增하야 目下名古屋支店을 開設코자 하는 計畫이 有하야 目下調查研究中인대 成算이 有하면 近々開設함에 至하리라더라

鮮銀券又收縮

朝鮮銀行券의 發行高는 越年後逐日縮少하는 바 六日現在에는 一億三千四十七萬五千餘圓으로 舊歲末에 比하면 六百萬餘圓이 減少하얏고 回收는 頗히 圓滑하다더라

消息

▲齋藤總督夫人은 九日日鮮外人三百名의 知友를 招待하야 茶話會를 開催
▲李承駿氏 雜誌(新生活)를 經營키 爲하야 滿洲에 出張中이든 바 再昨七日歸京
▲佐々木前慶南道知事는 七日午前十時自働車로 晋州撤歸의 途에 登하얏더라(晋州電)

橫說竪說

▲鴨綠江의 氷上通行區域을 制限하고 더욱이 午前八時以前이나 午後五時以後에는 絶對로 通行을 禁止하되 萬一此禁止時間內에 通行하는 者는 銃殺을 行하리라 ▲如斯한 非常手段은 宛然히 戰時狀態이다 總督府에서 正門으로 時局과 穩民心安靜이라고 宣傳하며 後門에서는 如斯한 戰時一般의 銃殺令이 發布되니 國境方面은 果然如何한 程度外지 形勢가 不穩한지 도모지 쉬음을 알수가 업다 ▲總督府에서는 宣傳이 第一長技이라 하니 如斯한 事에 對하야 압흐로 徹底히 宣傳을 하는 것이 緊要할듯하다 政治上으로 아모 關係업는 店童村婦의 血로 하야곰 鴨江의 氷을 紅染케 하는 悲慘事이나 생기지 안토록 徹底히 宣傳하라 ▲又時計는 如何한 것을 標準하야 此를 許可又는 禁止하는지 日力으로 時間을 推測하거나 正確치 못한 時計를 가지고 數分間의 差異로 此橫厄을 當할 念慮가 不無한즉 此에 對하야 該地方의 住民은 自己生命을 爲하야 極力注意하여야 할것이다

商況

二十九錢이 最低價로 三十錢과 四十錢에서 一進一退하더니 此際에는 破軍의 買人氣大振하야 五錢外지 高價를 出하고 ... 이라 軟弱의 多數賣物로 氣配稍低하더니 前場 ... 價보다 十丁低한 三 ...

仁川米 仁川府海岸町三丁目 取引所仲買人

三十四〇一錢으로 二十九圓九十三錢이오 先限은 大阪二節四十四錢과 三節三十七錢으로 節々低價 時報이니 一圓三十五錢에 始하야 傳하나 兩軍共히 守勢를 堅執하나 三十錢에 始하야 低價二十九錢과 高價三十二錢으로 極히 閑散한 步調中에 三十二錢으로 止하다 ▲下七錢으로 止하다 ▲第五節・當不足에 中은 三十圓〇三錢에 〇六錢으로 〇五錢이오 先限은 彼此 ...

去四日前場으로부터 若松社長及坂倉仲買人組合長이 新年禮辭와 共히 辯析一辭에 ... 也五十丁上騰에 不過하더니 以來數日에 中限沒落으로 一百六十七丁廢消되얏고 今後에도 百三十餘 ... ▲今年度米價에 對한 關係는 如何한가? 强材料로는 昨年度豐作不良으로 今年에 供給悲觀이라 하겟고 ▲缺이나 薄한 强材가 富한 軟材를 凌駕할만한 潛勢力을 가지고 如何한 形式과 如何한 時期에 棒頭를 出할가 나 元狀回復이 될는지? ▲初立會時에 客年中當實多額의 仲買店에 一等으로부터 五等外지 表彰狀과 ... 니와 當日의 白衣軍의 裏面과 又는 朝鮮人仲買店에서는 엇더한 感想이 有하얏는지? ▲元來이에 相關 ...

綿糸 綿布 精糖 麥粉 曹達 燐寸 洋屬 米穀 染料
輸出入商 京城太平通二丁目 株式會社 共進商會
電話(二七二六、三〇二九) 振替京城四三二八 電略 受信用(キシ又ハコウ) 發信用(キヨウシン)

英美洋行各種染料 朝鮮總代理店
各種『染料』를『廉價販賣』하오니 不拘多少하고 注文하심을 務望
地方特約店募集하오니 至急通知하시면 規則書를 付呈함
『定價表』는 請求하시는대로 無代進呈함

海墨廣告
海墨은 由來로 名聲이 藉々하거니와 本製墨所에서 今秋부터 愈益精製하야 廣布를 目的하오니 江湖僉位는 倍前愛顧하심을 望함
注文時에는 先金을 要하고 但送料는 定價三圓부터 免除함 多數注文하시는 때에는 割引規定이 有함
翰林風月 一丁 八十錢
芙蓉堂 一丁 三十錢
首陽梅月 一丁 二十錢
百世淸風 一丁 四十五錢
碧城香烟 一丁 四十五錢
六角塔 一丁 三十錢
海州郡南門外 共同製墨所 主任 宋源弼 電話一四三番

眼鏡과 萬年筆은 반다시 弊店으로 下命 目錄進呈
星眼堂 京城鍾路二丁目 振替京城七八五一

보시오!
●特廉한 山東紬衣次 ●時期適當한 山東紬
本店에서 山東紬를 左記와 如히 販賣하오니 多少를 不拘하시고 一次試用하심을 恭祝 見本은 無料進呈 但地方에는 代金引換郵料는 先金
定價表
甲 下衣一定 一件(八尺作) 十三圓二十錢
乙 下衣一定 一件(八尺作) 十二圓五十錢
丙 下衣一定 一件(八尺作) 九圓八十錢
郵送料 二十錢
新義州老松町 和松商店

新寫眞全部交換 一月八日 每週二回交換提供
▲米國유ー니바ー살會社 連續活劇 第四回 十三의 秘密 全十五編 卅一卷之內 四卷上場 第八 第九編
●文藝民衆劇 諷刺劇 懊惱의 胡蝶 全五卷
●伊太利암부로지오會社作 泰西正劇 嗚呼一刹那 全四卷
解說部員 金惠純 金永煥 崔鍾大 徐相昊 崔炳龍 禹定植
京城府授恩洞 團成社 電話九五九番

婦人良藥 益母草엑기쓰
▲▲益母草의 靈妙한 效能을 徹底한 科學的으로 最高限度를 發揮케 한▼▼
益母草는 數千年以來로 今外지 一般婦人病에 絶大無二한 靈藥으로 東西諸國에 喧傳되야 醫家의 賞用이 旺盛하얏슴뿐 아니라 此益母草를 服用하면 寡婦도 姙娠한다는 俗談으로外지 其藥效함을 稱頌하얏슴은 비록 三尺童子라도 詳知하던바이나 在來의 服藥方法은 單히 煎湯又는 未熟調製의 膏를 調製하야 服藥하얏슴은 이니 此는 煩勞의 多大할뿐 아니라 其有效한 全成分을 取集키 不能하야 藥效가 徹底의 域에 達치 못함을 遺憾으로 思한 本堂은 現代式巧妙한 歐米醫藥學上新調製法을 取長活用하야 其主效成分을 一毫의 遺漏업시 完全抽出한 本엑기쓰를 發明한 바 藥效의 偉大神速함은 僅一日之間에 顯著히 判明되오니 種々의 諸病으로 呻吟하시는 婦人은 即時本益母草엑기쓰를 服用하시와 一家의 歡樂을 享受하사오
主治 冷病、冷積、受胎不能、經度不論、經度時下腹腰痛、赤白帶下、産前産後氣血不足、顔面蒼白、手足厥冷、年久滯積、血積、消渴、消化不良、惡阻、浮腫、子宮出血、不眠、上氣、頭痛、眩暈、胎中益氣、産前産後諸病
定價 三十日分 壹瓶五圓 七十日分 ... 特製 壹瓶拾圓
調製 大盛堂藥房 本舖 京城府齋洞一二六・振替一〇一二二番

麻疾과 梅毒
곳낫습니다! 福音 愈々新發明된 完全한 新療法
이에 것은 治療와 藥劑를 엇지 苦心하시는 淋疾梅毒患者는 만은 效力을 ... 거정말고 葉書로 通知하시요 如何한 數年의 慢性일지리도 全治法을 無料로 進呈함
京城府樓町一三五 高麗商會 藥劑師 森育浩

益壯丸 一個月分 四圓 三個月分 拾圓
强補劑 一個月分 四圓
現今强腎補陽之劑의 許多廣告가 ... (先金又는 郵票로 ... 注文하시면 ...)
同和藥房本舖 京城府和泉町五番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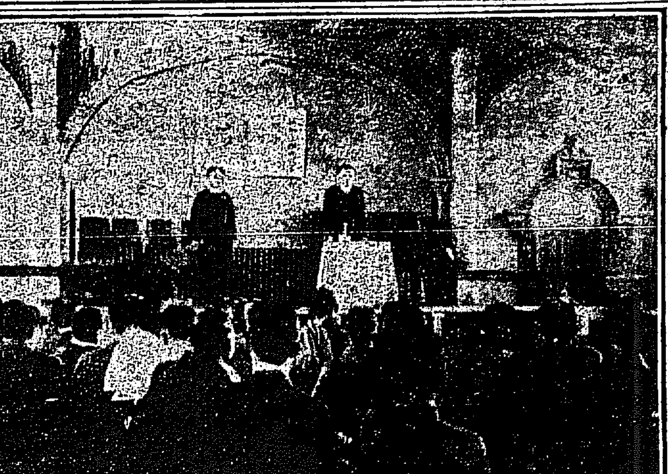
電燈反射鏡 電光器 新案特許第五二五八六號 實用新案特許
三倍明
△本器의 構造는 眞正船來鏡地에 本銀을 鍍金하야 거울을 만들고 金屬으로 製造한 多年研究實驗한 發明器임으로 鏡面의 變化가 도 容易히 破損하는 等事가 決코 업소이다
正價 四枚附一個 金七十錢 五枚附一個 金八十五錢
特許製造元 大阪 電明社本店
京城明治町二丁目二十九番地 朝鮮一手販賣 明友商會
特約店 京城本町三丁目(京城劇場下) イナツ商會
京城本町一ノ四八番地 コンダ電氣商會
●咸南一手特約販賣店은 境遇에 依하야 解約함

耳防寒大福音
本人이 多年耳掛(귀집)를 研究製造하야 一般에 便利케 하얏사오니 不拘多少하고 試用하시고 注文하심을 望함
各種雜貨 直輸入 平壤府里門里 黃天一商店

半島를 向하야 大聲絶叫
病火中苦痛하는 我半島生命을 拯救하러 來한 英國韋廉士紅色補丸
DR. WILLIAMS' PINK PILLS FOR PALE PEOPLE
主治 氣虛貧血 腎氣不足 健忘怔忡 遺精盜汗 房事無能 頭痛眼痛 月經不調 神經衰弱 老人小兒 赤白帶下 咳嗽吐血 虛弱諸症
定價 每瓶一圓五十錢
總發賣處 上海 麗德洋行藥材部 振替下關五四八四番
特約販賣所 京城南大門內 濟生堂藥房 平壤南門內 普生堂藥房

高値三十一圓三十九錢에始하야 오先限은大阪後場初付五十七錢 ▲第二節 當은又不成이오中은이오先限은大阪四節二十九錢으로 低은最低로難六紳刻이나高値三令新年度米價波瀾의發七於是乎三百餘丁十稍의騰料이든것이及且一週가明示하는바이다▲然而今年二고敗材는當한便으로豫測된다然調査米不似者의材인가? 何時에一한次진이잇슬는지 [illegible] 新年就福의禮賀一代하노라

◇조선총동회발회식 ‖ 칠일종로청년회에서 ‖



不得已한措處에不過

월사금을올닌다고설립자가 내이는돈을들내임은아니다

中等學校月謝增額問題 三

中央高普校長 崔斗善氏談

금년신학긔부터 중등정도 학교(中等程度學校)의월사금과입학금을올닌다는 문데가 이러나서 요사이 여러가지의 공론이잇다함은이미 보도한바어니와 이에대하야 중앙고등보통학교(中央高等普通學校)교댱최두선(崔斗善)씨는말하되 학교에서

월사금을 올닌다함은 매우큰문데올시다 그러나 월사금을올니게된 리유는 여러가지가잇습니다 첫재로는 사회의교육뎡도와 향학열이 느러가는 동시에학교의 경비도자연 징가하야갈것은 정한리치인대 아모리설립자가 재정을대이어 간다할지라도 한정잇는재산으로 한정업시느러가는 경비를 지불할수는 업는것임으로 물론해마다 설립자편에서도 징가하야 지출하겟지만은 그부담을좀 난우어일반학싱에게 얼마식좀더 부담케하면힘이만히덜니게될터이며지금 만일월사금을 올니지아니 한다하면 극도의소극적 경제를하지아니하면

현상유지 를하야 갈수가 업슬뿐만아니라도로혀현재에잇는상태를 주려지아니하면 유지가곤란할터인즉 만일지금 이와가튼곤난한 처지를당하야 매우애석한일이지만은 월사금을 올니게된것이외다 월사금을 올니면그중에 교학싱들은 비상한곤난을당하겟지 만은 일반으로보면부담이 조금더된다 할지라도 견대여갈수잇슨즉 만일이자리에서 소수의곤난을으라어 월사금을올니지 아니하고 또설립자편에서도 느려가는경비를 지불치못하게되야 학교의 현상유지에 급々하고철비를

현상에서 더주린다 하면 결국향학열이 날마다 느러가는 요사히에 배호고자하는 회싱들 더수용치못하게 될터인즉 만일이러한 비참한다경을 당하면결국은소수자의 곤난을피키 위하야 일반교육계에 큰불행이될지니지금 아니올닐수는 업습니다 한편으로 설립자도 힘것경비를 대이고 또그힘을난우어 희싱들도조금식 더부담하면 잘발전늘하야갈수가 잇습니다 나는권괴와가튼 리유로써여러번 생각한후올니기로 하얏습니다 그리고 뭇흥도 한마되할것은 작일귀지에 모학부형의말을보면 오천원이나 萬천원되는돈을

설립자가 내일것을 아니내이고 학싱에게넘긴다는 의미로말하얏스나 이뎜에 대하야는 특별히오해가 업기를 바랍니다 간단히말하면 늘어가는 경비를 전부설립자에게 내이라 할수가 업스니가 설립자도 물론전보다 만히 내이겟지만은 학부형편에서도얼마를 분담하는것이 좃켓다는 생각이올시다 하더라

鴨江氷上의 通行警戒

시간외통힝자는 총살한다고게시

의주경찰서(義州警察署)에서는 근일 독립단의침입을 념려하야 경계를 엄중히하던바 신년을당하야는 경계를더욱 엄중히하기 위하야 압록강연안각쳐에 아래와갓흔 엄중한공시를 게시하엿다더라

一 어름우으로 왕래하는곳은 청성진(淸城鎭) 청수(靑水) 방산동(方山洞) 구룡포(九龍浦)서호동(西湖洞)에 한함

二 빙상통힝 시간은 오전팔시로 오후오시까지

三 이상한뎡한 시간이외에 리왕하는자는 총살함 (신의주)

江東郡에 爆彈犯

청년단원리항욱은데포

항상 조선독립을희망하고 대한청년단(大韓靑年團)에가입하야 각방면으로 활동하는동시에 폭탄(爆彈)을준비하야 ○○○방면에서 ○○○회위를 하고커하얏다는 강동군원탄면(江東郡元灘面)리항욱(李恒彧)은 지난이십팔일경에 강동경찰서(江東警察署)의손에데포되야 취조를맛치고 곳평양검사국에 압송되야 지난十일부터 엄중히 사실하는중이라더라 (평양)

朝鮮人의 他殺屍體

신호에서발견 범인까지테포

신호시천기뎡 일뎡목(神戶市川崎町一丁目)에잇는 삼능회사창고(三菱會社倉庫)엽헤 적은개천속에 나히삼십세 가량되어 뵈이는 로동자의 모양 ᄒᆞᆫ자린 조선인남자의시테가떠라삼십관(三十貫)쯤되는닷(錨)에뭇겨물속에잠겨잇슴을 통힝하든사람이 발견하고수상서(水上署)에보고하엿는대동서에서는 크게소동을 일으켜즉시 그시테를검사한결과 타살(他殺)의혐의가분명함으로곳활동을 개시하야 그범인은 전라남도제주도신우면(全羅南道濟州島新右面)에본적을두고 방금신호시해안통일뎡목(神戶市海岸通一丁目)에잇는 해통사(海通社)의고인으로잇는김두텰(金斗哲)이라는자이며 그원인은 서로말닷툼을하다가 필경은권괴와 갓흔무참한일을 한것이라더라 (신호뎐보)

光復團員押送

평원에잡힌강학규등십삼명 평양검사국으로압송취조중

평남평원군(平南平原郡)을 근거로하고 안주(安州)덕산(德山)태천(泰川)녕변(寧邊)운산(雲山)진남포(鎭南浦)기타각디방유력자를 련락하야 조선독립운동의 목뎍을관텰코저하는동시에 그목뎍을 가지고 중국디방에서조직한 대한광복단(大韓光復團)에 가입하야

독립신문(獨立新聞)과기타불온문서를 사방에 배포하고각부호를협박하야 군자금(軍資金)을모집하다가 평원군량수면(平原郡兩水面)리지돈(李枝敦)방에서 약간군자금을모집한일이잇슨후 그관내주재소로부터 서봉근(徐奉根)김덕호(金德湖)두명을 동면히 데포하야엄중취조한결과 권괴여러디방에 벌니여잇든 련루자까지 전부데포되야 수십일동안이나 평원경찰서에서엄중한취조를밧고잇다는 강학규(康學奎)외십일명에관한 사건은 임의본보에 보도한바어니와 강학규등

십이명은 근일 평양검사국으로 모다압송하야 동검사국에서 다시사실을 엄중히조사중이라는대 각피고의 범죄사실을 대강듯건대 서봉근(徐奉根)은 재작년 십월중에룡천군뵈마역(龍川郡白馬驛)부근에서 텰도공부(鐵道工夫)에종사하든중 김상여(金尙汝)장익명(張益命)리동일(李東日)등의권유를밧아 대한광복군교통원(交通員)이되고 이래동년음십이월까지 리성린(李聖麟)등으로더부러 독립신문 기타불온문서를 긔차(汽車)에 실어가지고 단기면서 각쳐에배달하고작년 삼월칠일에 평양부내에서우연히

김상여를 맛나서로 손목을 잇글고 모란봉(牧丹峰)에 나르러놀다가 평양시내에 잇는 리동뵈(李東栢)를맛나 일변황겁하며 일변깃기는빠에 리동뵈으로부터 광복군 증표(證票)와 불온문서기 잇슴을보고 서로바기여 곳안주(安州) 디방으로가서 그곳에독립운동의긔관을 조직하고 군자금을 모집하얏스며 다시 한성재(韓聖在)한명재(韓命在)두명과 정을통하야 려비와식사의공급을밧고 김덕상(金德相)

군자금을 강탈코저하다가 목뎍을달치못하얏스며 김덕상은 항상 조선독립을 희망하는마음으로 상해(上海)에 가서 한족회(韓族會)에 가입하고다시신흥학교(新興學校)에입학하야 무술(武術)을 련습하다가 조선내디에 침입하야 ○○방면으 ○○○○에 관한사상을 선뎐코저하얏다는것인데각피고의수성명은 아래와갓다더라 (평양)

安州郡安州面七星里 康學奎(二五)
同所 徐奉根(二五)
同淸栢里 金海湘(二一)
平原郡白德面開里 韓聖在(四一)
同所 韓命在(三三)
鎭南浦 金尙汝(三一)
鐵山郡栢梁面劍岳洞 張益命(三二)
泰川郡南倉 李秉日(三四)
定州郡納淸里 李聖麟(四〇)
寧邊郡八面 李興弼(二〇)
雲山郡溫井 兪弼成(三三)
鐵山郡梁栢面雙岩洞 鄭炳洙
平壤府內 李東栢(三五)

新女醫師 玄德信孃

얼마동안견습하고 독일가지가볼작정

동경 녀자의학전문학교(東京女子醫學專門學校)를 우수한성적으로졸업하고 방금 시내죽쳠뎡(市內竹添町) 부인성서학원(婦人聖書學院)에류숙하고잇는 현덕신(玄德信)씨는 어엽분얼골에 커녀다운미소를씌우고 말하되 형식상으로는졸업하엿다고하나 실상은

아모것도 아지 못합니다 생각하면 모든것이 붓그러운것뿐이올시다 나는이화학당중등과(梨花學堂中等科)를졸업하고 어느부호의 도움으로 즉시동경으로 건너갓습니다 어언간 사오년의 긔디싱활을하다가 작년가을에야 겨우졸업을하엿습니다 그러나 나의배우고아는것으로는 도저히 무엇을하겟다는자신(自信)이 생기지 아니합니다 그럼으로 이후이삼년동안은총독부의원(總督府醫院)에서 조금실습(實習)을하라고 생각합니다 그후다시 긔회가잇스면 독일(獨逸)을 조금가보고

모든것이 뭇대로됨니가 하고 매우겸손한태도로 말뭇마다얼골을붉어지는바쌈々히부러오는찬바람은 그의하얀 얼굴에 느리진 검운머리는하늘々々흔들어 그로하야금 더욱커녀다운 순결하고도 아름다운 태도를 낫타나더라

陸軍官舍에 竊盜

범인한명은데포

작년부터 평양보병대(平壤步兵隊)륙군관사(陸軍官舍)에 출몰하며 군인의구두와 가타여러가지물품을 훔치는자가잇서 왓스나 그자는교묘하게 만흔군인의눈을속히고 비상한 힝동을함으로 경찰당국에서와 헌병대에서는 매우근심하고 (따라서엄중히) 조사하야 오든바 지난삼십일々에 겨우범인을데포하야 평양검사국에 압송하얏다는데 범인의 성명은 아직도비밀에 붓치엿다더라 (평양)

興農會의 發會式

농민의지도장려긔관으로 칠일청년회에서발회되어

조선의 농사를개량발달 식이기 위하야발긔된 조선흥농회(朝鮮興農會)의발회식은 칠일오후두시에 시내종로청년회관에 열니엿는대 먼저그회리사댱리운(理事長李雲)씨가조선인의대부분이농민인대 이에까지 지도장려를할만한 긔관이업슴으로 매우유감이더니 금번에이중대한 칙임을지고흥농회가출싱되엿스니장래더욱 분투하여야하겟다는말로개회사를맛치고 다음 리빈으로 김필수(金弼秀)씨외 여러명사의 축사가잇슨후 다섯시에 폐회하얏는데 그회에서는 삼십여명의 발긔인이 각々빅원이상의회비를내이어 오천원이 되엿슴으로 먼저농업에관한 잡지를 발힝하고 차々로각디방에 지부를설치하야 농민의 지도와농업개량을도모할터이라더라

三十本山聯合制를

폐지하자는의견에일치 불교도총회데이일오후

수송동삼십본산 련합사무소(壽松洞三十本山聯合事務所)에열닌조선불교도 총회는 칠일오후 계속개회하야『삼십본산 련합제규(三十本山聯合制規)』는다만 몃々주지들의 권케로하기 위문에사업이잘되지아니々니폐지하여야하겟다 는안권이나오매 만장일치로 폐지하기로 가결하고 그다음은 작년도에 시설안사업에대하야 각부당의 보고를듯고 오후네시에 폐회하얏는대 작팔일에는 오전열두시까지 회원에게금년일년농안 새로히 시설할 사업에대하야 일々히의견서(意見書)를밧은후 긔초위원(起草委員)곽법경(郭法鏡)씨외삼십일인이 모히어모든 계획과규측을 제뎡한후밤 일곱시부터 다시총회를열고 밤을새어 토의하야 금일안으로는 대톄의방침을 결뎡될터이라더라

連日頻頻한火災

적선동과서계동에

작팔일 오전세시반경에 시내적선동(積善洞) 일뵉삼십사번디 빈인창(印貞邑)의집 뒤에 싸아두엇든나무가리에서 불이나서 집웅으로 불길이당기는것을 지시소방대가 출동하야 진화하얏스며재작칠일 오전열한시 경에는 남대문(南大門)밧 서계동(西界洞)팔십번디 치랑수(測量手)삼포시태랑(三浦市太郞)의집에서도불이나서 초가집한채를 태이고진화하얏는데 원인은 란로에서불꽃이 나와서 집웅에당긴듯하다더라

誘引으로賭博하고

경찰서에호소한자

본적은 전라남도(全羅南道)에둔박항린(朴恒杰)(三〇)는 재작칠일오후 여달시경에 시내관렬동(市內貫鐵洞)에잇는 모중국료리집에서 엇던자의 꾀임을밧아 여지로투전을하다가 순식간(瞬息間)에현금삼빅팔십원을일허바리고 그자는 어대로도망을하엿는데 그는이사실을 종로서에 보고하엿슴으로 동서에서는 방금 범인을 엄탐중이라더라

女兒라고故意壓殺

바라든아들이아니라고 갓나흔계집아히를죽여

선산군고아면봉산동 윤호주 처수권봉군(善山郡高牙面鳳山洞尹鎬九妻權秦君)(ᄒᆞ)이라는 녀자는 시집간지 륙칠년에다만두명의딸만두고 항상 아들낫키를싱각하던중 우연히 재작년십일월경에 아해를배이며 금년은꼭아들을낫는다고밋다가 낫코보니 또딸이라 그녀자는 딸자식만 만하서 무엇에쓸가하고 락망하야 드되여한편다리로 갓난아해를눌너죽이엿든바 그일이발각되여 소관경찰서에데포되야 그녀자는 목해살인죄로 옹중에서 고통을 바드며 잇는중이라더라 (대구)

萬壽臺에棄兒

나흔지열흘이못된 계집아해를내버려

지난사일아츰에 평양만수대(平壤萬壽臺)부근에서 어린아해의 우름소리가 바람결에 엇차 들니여 지나가는 사람의거름을 멈추게 하얏는대 평양부창뎐리(平壤府倉田里)륙십일번디에잇는 최희

李昌海氏滿期出獄

지난륙일평양에서

평양숭실대학교 (平壤崇實大學校)학싱으로 조선독립을 희망하야활동하다가 평양디방 법원에서보안법 위반총포화약류 취톄규측위반 (保安法違反銃砲火藥類取締規則違反)이란 죄명으로 평양감옥에서 자유롭지 못한싱활을 맛보고잇든 리창해(李昌海)씨는지난륙일오전구시에 만긔되야출옥하얏다더라(평양)

義州에獨立團潛入

경찰편에서는방금크게경계

중국관뎐현(寬甸縣)모면자(毛甸子)에근거를둔 독립단결사대원○○○은부하 륙명을 다리고 지난십이월이십구일 의주군송장면운천동(義州郡松長面雲川洞)자그집와서 식사를하고모처로향하야 출발하얏다는데 소관경찰서에서는 경계를 엄중히 한다더라(신의주)

德川署에 重大犯

평양시내에도 련루가잇는듯

근일덕천경찰서(德川警察署)에서는 모중대범인을 검거하야엄중히 취조중인데 평양시내(平壤市內) 모방면에도 련루자가잇는듯하다하며 이범인은 여러방면으로 다니면서 조선독립을표방하고 다수한금을 강탈한일이 잇다는말도잇스나 또의방으로 범인의처지와 힝동을살펴보면강도인듯도 하다고 추측하겟스며 범인의성명은 덕천군태극면풍덕리(德川郡太極面豐德里) 량계도(梁濟道)라더라 (평양)

늑대一頭捕獲

고양연희면에서

작년가을부터 고양군은평면(高陽郡恩平面)부근에는 늑대가출몰하야 가축을만히 무러가서 사아니와 폐해를 이르키든바 요에도 또연희면(延禧面) 밤면에에도 늑대가출몰하야 밤에다니는아해들이 위태함으로때현(火

平壤에도豺害

하룻밤에도야지 다섯머리를상해

근일 평양칠성문 (平壤七星門) 밧부근에는 늑대의출몰이 빈々하야가축을 상하고 김흔밤숙쳐 々한골목에서는 질가는 사람까지괴롭게 하는일이 만타는바지난오일밤에도 신양리 (新陽里) 부근에서 늑대두머리가 나타나서도야지다섯머리를몰어상하얏다하며 집々마다 매우근심하고 더욱히 어린아해들은 주의할일이라더라 (평양)

迎日九龍浦에 火藥爆發

일인두명참사

영일군창주면구룡포 음식뎜 신개계도(迎日郡滄州面九龍浦飲食店新開繼造)의집에잇던 일본애원현설지군 (日本愛媛縣設智郡)에서 출싱한 어부 관종사랑 (關宗四郎)(三一)은 지나간십이월니십륙일 하오십시 삼십분경에 이층에서 비밀히어업용폭약 (漁業用爆藥)을 제조하다가 부시중에 화약을 화루중에떠러친 까닭으로 돌연히 광소리가나며 폭발되야 권괴관종사랑과 그것헤잇던 일본향천현대천군(日本香川縣大川郡)출싱인 그음식뎜에잇든 주목오사이(三一)라는녀자까지 죽엇는데 그급보를들은 수재소순사들은 소방대 두어명과 함씌가서 응급치료를하엿스나 다시살니지못하고 그것헤바에잇던 주인부々는 무사하얏다더라 (대구)

下關에 無首屍體

아홉달된태아의 머리를잘는시데

지나간륙일 오후두시경에 하관아미타수뎡(阿彌陀壽町)내무성토목출장소(內務省土木出張所) 엽해안에 아홉달가량이나 되는 태아(胎兒)의머리는자른시데가 떠밀니어잇는것을 수상 경찰서의순사가 발견하얏는데 시데는 타살을당한 의심이잇슴으로도 무를하야 검사를하얏다는바 그아해의머리는 날카로운 칼로버힌흔적이잇다더라 (하관)

救世軍士官 許日夫人逝去

삼십구세를일긔로

구세군 사관화교당「헐」(許日)씨의부인은 오일오후팔시에 삼십분에 다년숙가이던빈혈증(貧血症)으로 별세하얏다는데 부인은 십삼년전에 켜녀의몸으로 조선에나와서 구년전에「헐」씨와결혼한이래로 종신을몰론각디방으로도라다니며 권도에 노력하엿스며 특히부인은 조선사람을 자긔의몸과가치 사랑하엿다하며 향년이 삼십구세라는대 금일오전십시에 구세군대일영(救世軍第一營)에서 영결식을거행하고 동일한시에 양화진(楊花津)에 장사하다더라

●—◆—● 모임 ●—◆—●

▲중앙엡웟청년회강연회 금구일하오칠시에 종로중앙 청년회관에서 다음과가치 강연
나의自覺 金昌俊
靑年의活動力 姜得英
小弱者의歡喜 金 華
(입장료 이십전)

◆온도비교◆ (華氏)
今年昨日(正午)零下 二·九
昨年昨日(正午)同 一一·五
昨年最低 零下 二二·三

天氣豫報
日出 上午七時四九分
日入 下午五時三〇分
晴
自八日午後六時 至九日午後六時
攝氏七 日最低零下十六·七
攝氏八 日正午零下二·九

◆휴지통 ▲시내서부에잇는어느 목욕집에는 오음환자가 목욕을하엿다나하야 요사이 그부근에서는 소문이 자々하다▲이것이 사실인지 풍설인지는모르지만은 이사람저사람 함부로 드나드는공동목욕탕 에는 그러한 병자가업스리라고 단언할수도업스나 오음기든것은 눈에현저히 보히는병이닛가 그다지모르고 드릴리도업거니와▲만약다른 전염병자가 목욕을하는일이 잇다하면 과연공중의심상에 중대한문데이오일반이 주의할일뿐 아니라 ▲목욕탕경영자부터 면밀히 주의치아니하면 아니될일이오 그러한 전염병자는 가진사람은스사로 공중도덕을위하야 공동 욕장에는 가지아는것이 조켓고 ▲경찰당국에서도 목욕탕이라던지 음식뎜가치 다수한 사람이 드나드는곳에는 특별한 단속을하야 두려운병독이 전파되는 폐단이업게 하기를바란다

學生界大福音

本事業에施設槪要는左와如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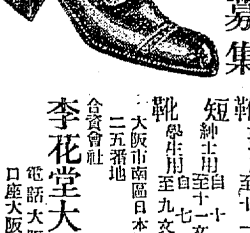
株式會社 京城學生館 創立事務所 京城府中學洞十七番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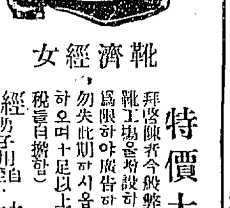
萬年筆各種 特價 自五圓至十二圓 十餘種具備 修繕 直輸入 都散賣 京城 之商店

健腦神藥 効能 腦炎, 腦充血, 偏頭痛, 腦貧血, 小眠症, 便秘, 健忘, 精神衰弱, 其他腦病一切에는此健腦神藥 定價表 七日分 金八十錢 十四日分 金一圓五十錢 廿一日分 金二圓二十錢

消風丸 効能 定價表 五日分 金五十錢 十五日分 金一圓四十錢 卅日分 金二圓五十錢 京城鍾路二丁目五番地 主 金衛鎭 壽山藥房 振替京城七六四一番

오음 피풍 全治藥 每年冬期면苦痛하시는오음피풍患者諸君은此全治藥의効力을一次試驗하시오此全治藥은오음과피풍을全治法根하는百發百中의神藥이오며再發之慮도全無한永久法根劑(地方注文送料不要) 藥價 小壹圓 中貳圓 大參圓 京城府竹添町一丁目 濟世藥房本舖 振替京城六二二四番





經濟靴 男 經濟靴 女 特約店募集

特價大賣出 拜啓陳者今般弊支店에서(ㄱㅅ)靴工場을增設하고男女靴一萬足을爲限하야廣告하오니四面諸賢은勿失此期하시옵(價格은左와如하오며十足以上注文者에게는郵稅를自擔함)
經濟靴 男子用 自十文半 至十一文半 壹圓六拾錢
女子用 自十文 至十一文 壹圓四拾錢
短靴 紳士用 自十文半 至十一文半 壹圓八十五錢
學生用 自七文半 至九文半 壹圓三十五錢
合資會社 李花堂大阪支店 大阪市南區日本橋筋四丁目二五番地 電話大阪南二二四番 口座大阪四五二二二番

坂平尹氏太尉公派譜所設立 一昨年校正爲始하야各門中修單迅速上來無至見漏追悔千萬幸甚 譜所 京城府昌信洞七十三番地 尹[illegible] 尹炳一 告白

營業科目 紬緞綿布直輸入 總ゴム製朝鮮式便利靴 男女用皮靴 各種製造發賣元 發賣所 馬山府元町一四二ノ一六 金榮善商店 製造工場 神戶市大道通四丁目

松都末年 불가살이전 (全一冊 定價 三十錢) 蓋世에는도라지안코쇠만먹는불가살이! 무섭다면무섭고奇怪하다면괴이한그즘싱이半千年以上을世上에出現하야 비로소松都末運과漢陽始初를背景으로하고 사람에게구경을식혀!

남도새타령 (全一冊 定價 二十錢) 名唱을만나라거든『인갓잡새─남아도라』이남도새타령을갓다보와! 펄々날며우름운다 ○附錄으로名唱의노리를만히加入!! 本書局은新舊書籍과唐板冊類와新舊小說이俱備 大發賣所 京城府觀水洞三〇 光東書局

新築移轉 元山府橋下洞三十七番地 內科 小兒科 旋善醫院 院長 全龍奎 助手 黃鍾燮

特製漢陽木 조흔의복감 本人이新舊雜貨界에從事한지十有星霜에四海諸位의愛顧하신高德으로營業이夫益發展됨을記念키爲하야今般에織造工場을特設하고二合糸로堅實精密케織造하야原料代價로廣告的販賣하오니一次注文試用하시기伏望함 黑色一疋 二圓四十五錢 灰色一疋 二圓四十錢 白色一疋 二圓三十錢 (大人用 周衣감 一付次) 但地方代金引換 十疋以上同業者注文에는特別割引이有함 京城鍾路二丁目八九番地 萬物床廛 大德奎

養蜂 春期講習生大募集 元巢群 營業 高麗養蜂場 振替口座京城一二〇三〇番

朝鮮名筆 秋史書帖 發行所 德興書林

본방이개업이래제우에게고하심을다몽하온바금번일신잡화를완비확장하옵고 대렴가로쥬문하시는대로신속하옵소서 又본점에서제조하는美香粉은품질이양호하야귀부인에게천성을만히밧는바이오니한번시험하야보시오 五房在家 京城府黃金町一丁目八十八 朴友植商店

무쇠탈 (九)

閔牛步

전왕비 오부인、왕비 한씨、시녀연연이、배종리창수(四)

와 오부인은 시녀연々의 잡고며 머리맛헤 둘니는 발자취로하여서 노염파한에 어지러운가슴을부둥켜안고 커무서운 빈침대압헤 쓰러졋슴은 듯이 서잇셧다 이욱고 발자취가 살어지매부인은 맘도 차々진뎡되야 지금의지식각못하던일을 죽음식 싱각이게되엿다 대관절 이번침범은누구를 살해하기위하야 밤에노는가 연々이가 이천대에올흔것은싱각도 못할일인즉 내몸을죽이기위함이야 노은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친한친구로 싱각하던리한욱씨지도 나의원수로구나 니에대하야 싱각나는것은 파리를떠날때에 내신상이 의험하다하며 삼복중에 가장 무서운대로히잇다하야 간절히만류하던 라패신의 말로 유일한 친구이더기두이왕에게 소방을당하뒤 다시엽는 심복으로 싱각하고서장에엽시 총애하던 리창수가지 내몸을 커바리는터이즉 기외의사람들이 밋슬수업는것은 괴이할것이업다 할지라도 이러케서지의지할곳이업게된다는것은파연 의외이리고 이악부인의괴승한천길도도의자우에가쓸어커을

자하나 눈은무엇에 쏠니는것갓치 연々의시테를 떠나지못한다 가련타 연々의시테는 잘튼쎄와일반이나 운명시의고통은 그얼골에 력々히낫타나 감지못한두눈은 야속스러히부인의 얼골을바라보는것갓다 어시데영혜서하로밤을 지나는것은 남자라도할수업는일이어든 항흠며 녀자의몸이라 더욱이 독갑이귀신의무서운이야기가 도커에 청힘하던뻐의일이며 그뎐만안이라 부인은 리태리사람의 타고난버릇으로 시테를무서워하기 남보다심한터이라 이케는 깁흔일초를이밤에머무르지못하고 무서운싱각에 정신이업서 창문을열고보니 여긔는 이층이라 엄우로두경이넘어 뛰여나리기 가망업다 그러면방문으로밧게 나갈수 업다고 그대로드려서 々 문압흘당도히매 여긔는굿게잠겨쇠를잡것다 열쇠는엽는가하고 둘너보는중에 열어노코잣분으로 바람이들어와 촉불을불어쓰니 갓득비나무섭던밤은 더욱과갓치 캄々하여젓다 그럼々한 가운데에서 부인은눈을열고자 애를쓰니분은굿게닷치여 움작이지 안이하며듯뒤에서는죽은사람이 일어나와서차 더친손길로목을두를터든는것갓흔지라이케는무서운싱각에바문손상이 만분을고늘엇스나

어서일어날긔운도업는것가텃다 그러나 이대로밤을새면엇지될것인가 미구불원하여서 커라한욱은 자긔의계책이 성공된여부를알어보기위하야 이방에 올것은불문이며 그때에내몸이 죽지안코 연々이가죽은것을보면 그는자긔계책이 발각됨을알고 엇더한일을할는지도 치량할수업다 조커뎍에도볼쥭 함상스러운 무사가 그의등뒤에잇슬어닌님은 만님의실수를당면하인지도알수업다 설마황후의알홈을가진 내몸을잡어가지고 함부로 욥거죽임리는업것지만은 만사에 만철하그자의일이니가 또무어이고 게최々궁여내여 빈침대의 실컷을ㅅ복하고지할것은 분명하다 아무리천지이위한곳에서한시각을지남은 한시각의의험을 무릅쓴이라 날이밝기전에 싸커나갈수밧게업다고 부인은 겨우마음을뎡하고 의자로부터일어서 사면을돌나보니 죽는은다하야 빗처어둡고 들은바안는 커々히소리가업서 휘々한찬바람만 옷깃을움습한다 더욱이무서운것은 키번침대이라 임의연々의몸음을 은어바리고커음과가치소리도 커러도업시 차々차々 퍼지기시작하야이케는연々의시데를이진파가치나타내고런개뎜은판파가처홍치하던모양은다시흔적도남기지아니하엿다아々엇더케무서운지게々가부루은이 모장을가니보고

다시싱각을한즉 이문은 밧게서잠근문이안이요 안으로서 연々이가잠근것이라 그러면 열쇠는분명히연々의 주머니에 잇슬것이다 이러한것까지는 싱각을하엿스나 엇더케하여서 이것々가중에 시테의주머니를 뒤뎌볼가싱각만하여도 소름이 씨치는터인즉 인케는할수업다 설령문이열어커죽는다 할지라도 창밧으로밧게뛰여나릴 도리는업다 생우에눈이싸인것은 내몸을 밧는방석이나 일반인즉 둑거운외투로몸을싸면무사할수도잇겟지하고죽을힘을다하야 더듬々々더듬어가지고 추커뎍에연々이가개커노은외투를집어드니무엇인지달그락하고 의자밧에 부듸커가지고다시방바닥에 쩔어지는 소리가난다 혹시나하고 몸을굽히어화문석바닥을 더듬어보니 런린중의런형으로 손에 거치는것은한낫의열쇠이다 그러면이는연々이가 외투를개켜노코 그우에어커노앗던것이 로구나 이것만잇스면 창문으로뛰여나릴 필요는업다고 다시문압흐로가서 열쇠를 놋코 돌어보니 과연방문은힘들지안케 열니는지라 자취업시렁히에나서보니 여기는 장명등의 희미한빗이 오히려남어잇다커우소싱된듯히 싱긔어둠어축계를나리고자한즉 아々이일을엇지하나 간밤에보던 험상구진무사는 녀자가푼수한 큰칼을엽헤

노코 압감의광하를 가로막고누어잇다 이것은 의심할것도업시주인하욱이 이려한일이 잇슬가념려하야 나의방을 지히게한것이다이야말로부인은호랑이를피하다가다시이리를만난격이다

三崇學校同情金

鎭南浦新興里監理敎會에셔는十二月二十五日夜에三崇學校를爲하야傳道講演會를開하얏는데洪乘璿氏의司會下에崔濟東氏의傳道가有한後沈熙鉉孃의「女子敎育」金昌湜君의「敎育爲能」이란題下의演說이잇슨바一般聽衆은感淚를不禁하얏스며更히女學生의「復活」이란歌劇과男學生의「博士의來朝」란聖劇은興味가津々하얏스며當席에서該學校를爲하야左記同情金이有하얏다더라

金十圓式 盧大郁梁載學車應陸 無名氏朴順德

金五圓式 金川淑盧斗賢與宗奎 安康德李根華白南哲金振兒金昌鎬白南淑朴璇周金元浩金就碩李東股林忠賢金泰杰洪範時白鎭爾洪兆道馬京七鄭頌洙趙永善崔鳳仁

金三圓式 安明欽崔剛俊李信一金德奎金炳湜元淳河曹昌洙趙鎭亨金俯崇崔鵬浩李善德姜基贊趙穎淳金延植

金二圓式 金明沃金利勳金昌道沈鎰杓朴淳敬邊時幹李元華安基浩金孝成梁富德姜篤信具興賽李亨泰張希謙盧淑金炳柱朴平三孫昌浩崔致杰東正月韓支配夫金淑彬金德煥

金一圓式 安鍾仁金德信孫桂順金昌淵金鳳恩金昌淑宋忠心趙永哲吳貴錫安基萬吳明玉金賢愛宋永煥李龍澤崔龍錫李成德朴周元李信聖徐大善元忠心吳基鎭李北賜金炳俊元忠翁李昆女金亨模白永崔鳳元李宅浩朴尙益朴承模信權趙炳八洪兆化趙永福金川莊完全李學金 氏河春涉張官國孔金能俊黃河水李永福李演禹洪大吳根成金善九(以下는略) (鎭南浦)

驪州의聖誕祝賀會

驪州邑內耶蘇敎會에셔는크리스마스祝賀日을當하야該敎堂內外를華麗히裝飾하고十二月二十五日下午七時에祝賀式을擧行한後天使갓흔幼年의活潑한讚頌소리는傍觀者로하야금無限한感想을주엇스며除興은本邑振興會主催로聖劇을演出하얏는데同十時盛況裏에閉會하얏다더라(驪州)

李相殷君北京留學

咸南定平郡春柳面禾洞里李相殷君은當年十七歲인바漢學의素養이豐富하야一般의稱譽이有하더니今般志를決하고十二月二十七日午前南行車로北京留學의道에就하얏다더라(新上)

馬具禮宣敎師歸咸

카나다宣敎師馬具禮氏는朝鮮敎會를爲하야만흔辛酸을嘗備하며二十餘年咸興에셔努力하던바夫人의病報를接하고去年歸國하얏더니同夫人의病勢가回復되얏슴으로다시因緣깁흔朝鮮을向하게되야十二月二十九日午後十時列車로着咸하얏는대宣敎師와多數敎友의歡迎이有하얏다더라(咸興)

天道敎會紀念盛況

義州郡光城面柳草洞天道敎傳敎室은建築에着手한지以來兩年에竣工되야十二月二十四日該敎會三世敎主承統即人日紀念當日上午十一時부터金潤德氏의司會로盛大한紀念式을擧行한後一進하야下午八時부터李川錫君의司會下에講師崔乙龍君의趣旨說明이有한後에郡南金永洛君의敎育에對한講演이잇나자順序에依하야

定平南山敎會祝賀

定平南山耶蘇敎會에셔는크리스마스祝賀會를十二月二十五日午前十時에開催하엿는데高揚한赤十七百餘名이라讚頌、新約聖經朗讀、祝賀辭、贈答品傳送等節次가잇슨后에閉會하고茶菓의饗應이有하얏스며午後二時부터는幼年賀會를開催하얏는바時間前부터敎歌로閉會하얏고同七時부터는定平靑年會館에서耶蘇敎女小學校의主催로歎劇祝賀會를開催하얏는데時間前부터科學生들의運動唱歌各班學生의合唱及奏樂頌詩祝賀「樂園과아단」「再降臨」等順序로進行하얏는바滿場의快樂은會館이터나가

總會를信川邑鄕約所에서開催하얏다더라(信川)

江景面擴大後報

二十四日午前十一時부터學生及職員一同이聖誕祝賀行列이有한後同十二時부터祝賀式을擧行하얏는대學生의演說과合唱이有한

……建築物을……太平洋會議開催의場所及……仁川在住靑年某々氏의發起로距今三年前即大正九年四月부터一利益金中에서諸費用을除하고純利益金이四千六十七圓十一錢이라……美風을目的으로殖産契란一團體……良好한成績을……

聯合會巡講團着黃

京城예수敎靑年會聯合會西鮮巡回傳道講演團一行은去月二十九日午後列車로黃州에到着하야敎會에서豫備하고기다리든自働車를搭乘하고入城하야午後七時부터當地禮拜堂에서洪性昌氏의司會下에演士尹槿氏는「聯合에對하야」한問題로李大偉氏는「靑年會의使命」이란問題로吳應千氏는「時代가要求하는靑年」이라는問題로各々自己抱負대로長時間에互하야熱辯을吐하얏는데七百名의聽衆은큰覺悟와만흔늣김이잇스며講演會는同十一時十分에閉會되얏는바本敎會內合成女子靑年會에서는加入하기로하고男靑年會는아즉組織지못한바이에잇셔더니今番此機會에組織하기로하얏스며一行은午前十一時車로兼二浦를向하얏더라(黃州)

聯合會巡講團來兼

兼二浦人士들의屈指苦待하든耶蘇敎靑年聯合會의巡廻講演團一行은去月三十日午後二時十七分着하야多數歡迎裡에來着하야仍히大正町韓仁敎氏宅에서晩餐이有한後同七時부터耶蘇敎禮拜堂에서講演會를開하게되얏는데男女觀客은定刻前滿員인大盛況裡에牧師崔鎭泰氏의司會로讚頌과祈禱가有하얏고一行中尹槿氏는京城耶蘇敎靑年聯合會의沿革을說明하야地方靑年의助力을바란다는말이잇난후李舜稙君은世界改造란問題로李大裕君은基督敎人의責任이란問題로各々略四十分間熱辯을吐하얏고繼續하야吳應千氏는時代와順應하라는問題로時代觀을紹介하야現代吾人의取捨를責하야觀客에게無限한覺醒을준後同十一時半에三章讚頌으로閉會하고翌三十一日午後十二時三十分車로一行은載寧을向하야出發하얏다더라(兼二浦)

該敎會少年生徒의자미잇는問答又는歌劇이有하야四百餘名聽衆의게感動을주엇스며劉致律君의獨唱이亦有한後同十一時에閉會하얏다더라(義州)

歲暮讀者慰安會

馬山劇界에聲名이有한聚星座金小浪一行은日前마침馬山俱樂部運動場에서期成會와不少한因緣이有한터이라該一行은日前當地에到着하야一般의歡迎裡에서連日興行中特히本社支局과交涉하야本報愛讀者에限하야特別割引券을提供하야歲暮讀者慰安會를二日間開催한바每夜滿場의盛況을呈하얏다더라(馬山)

主日學校學藝會

去月二十六日下午六時半에義州耶蘇敎主日學校에서第八回學藝會를當地西會堂內에開催하얏는대定刻이되매男女觀客은千有餘名에達하얏고天眞爛熳한幼年男女學生들의자미잇는唱歌와嘉尙한演說에는聽衆의拍手喝采를起케한盛況을呈하얏스며連하야同校卒業式을擧行하얏는바卒業生은男女合二十七名이라卒業證을各々授與하고九時半散會(義州)

安州勞働組合總會

安州勞働組合에서는第一回定期總會를去十二月三十日下午八時부터天道敎區內에開하얏는바組合員一百餘名이出席하얏스며組合長洪禹疇氏의司會下에會員點名、前會錄朗讀、會計報告、組合票及勞使制定의通過가有하고新年에施設에對하야同顧問禹翊鉉氏의一場熱烈한言辭와組合長의說明이有한後同十一時頃閉會하얏는데同組合을設立한지日淺함에不拘하고一般成績이頗히良好하다더라(安州)

各地靑年團體

全州大和町 米穀商 朴疇東
全州 秋月館一同
全州本町二丁目 印刷業 印學洙
全州大和町 一三商會 ㊀運送部 電話一二五
全州多佳町 客主 朴探奎
全州本町二丁目 新興理髮館 崔埼炫
全州敎育會一同
全州本町三丁目 完一堂乾材局 主 朴斗根
全州郡多佳町 宋柱祥
全州大和町 朝鮮洋家具指物工場主 金守德
全州伊東面華山里 李承根
全州大正町三丁目 申寓永
全州本町二丁目 乾材局 東洋堂
全州大正町 藝妓 趙翠蘭
全州大和町 藝妓 梁弄月
全州大和町 藝妓 朴素姬
全州大和町 藝妓 成三珠
全州大和町 藝妓 李翠蓮
全州大和町 藝妓 朴白雲仙
全州大和町 藝妓 朴初香
全州大和町 藝妓 朱仙玉
全州大和町 藝妓 金錦珠
全州大和町 藝妓 趙翠玉
全州大和町 藝妓 金玉瓊
全州大和町 藏妓 丁遊仙

全州郡全州面多佳町 醫生 吳世淵
全州郡完山町 紙物商 宋柱玟
全州郡完山町 金南淳
全州郡完山町 李載旭
全州郡完山町 趙聖德
全州郡本町 永昌帽子駐店 李京浩
全州郡本町 鍮店 金俊秀
全州郡本町 綢緞布木雜貨商 崔一文
全州郡本町 金道弘
全州郡本町 全北道參與官 朴榮喆
全州參禮面於田里 面協議員 都京煥
全州郡高砂町 辯護士 石用銃
全州大正町 代書業 李贊玉
全州大正町 辯護士引地寅治郎事務員 李起兌
全州高砂町 代書業 金淵鎬
全州大和町 南一商會 辛奭柱
全州大和町 完天合資會社長 金炳殷
全州本町二丁目 朝鮮紙物貿易商 李在炯
全州大和町 藝妓 金雪中月

全州大和町 藝妓 朴公厚
全州本町 鄭赫謨
全州郡本町二丁目 綢緞布木商 金顯燮
全州郡八達町 藝妓 崔月香
全州郡多佳町 新昌旅館 李泳漢
全州多佳町 牛皮商 權斗晧
全州豐南町 李春興
全州八達町 三南銀行取締役支配人 山崎晴五郎
全州豐南町 朴完鎭
全州郡鳳東面九尾里 黃熙喆
全州郡鳳東面場基里 劉公叔
全州郡高山面邑內里 李柱赫
全州郡高山面邑內里 秋炳淳
全州郡三奇面宗里 李昌載
全州郡高山面邑內里 李容綺
全州郡高山面陽也里 李賢載
全州郡高山面陽也里 李德燦
全州郡高山面花亭里 藥種商 李惡相
全州郡高山面南峰里 鞠學洙
全州郡鳳東面場基里 鳳東義塾
全州郡華山面花坪里 華山公立普通學校 校長 桐澤調
全州郡飛鳳面鳳山里 鞠同煥
全州郡飛鳳面鳳山里 柳青昌
全州郡飛鳳面鳳山里 李敎敏
全州郡飛鳳面鳳山里 趙載寬
全州郡飛鳳面水仙里 姜弼熙
全州郡飛鳳面水仙里 朴孝鎭
全州郡飛鳳面百島里 韓重烈
全州郡高山面西峰里 李京三

全州郡鳳東面堤內里 沈良燮
全州郡鳳東面堤內里 崔大澈
全州郡鳳東面堤內里 林秉瞰
全州郡鳳東面九尾里 金聖仲
全州郡鳳東面屯山里 黃永煥
全州郡鳳東面屯山里 柳三
全州郡鳳東面屯山里 柳佰
全州郡鳳東面屯山里 柳信
全州郡鳳東面城德里 崔洪
全州郡鳳東面隱下里 朴炳林
全州郡鳳東面隱下里 宋淳發
全州郡鳳東面新成里 李鍵哲
全州郡鳳東面場基里 金共珍
全州郡鳳東面事務所 金炳善
全州郡鳳東面場基里 李奎煥
全州郡鳳東面事務所 金晶植
全州郡鳳東面 面長 李元求
全州郡鳳東面場基里 代書業 崔炯植
全州郡鳳東面 私立永興學校 敎師 李圭南
全州郡鳳東面九萬里 拵菸容主 趙仁淑
全州郡鳳東面九萬里 李學寧
全州郡鳳東面九萬里 侍天敎堂
全州郡鳳東面九尾里 柳泰根
全州郡鳳東面九尾里 朴勝武
全州郡高山面南峯里 李秉庸
全州郡高山面南峯里 楊東振
全州郡高山面邑內里 藥種商 朴俊陽
全州郡高山面邑內里 雜貨商 李永完
全州郡高山面於牛里 藥種商 白宗洙
全州郡高山面邑內里 南宮性準
全州郡高山面邑內里 高山醫院 院長 金敎昌
全州郡高山面栗谷里 金永煥
全州郡高山面邑內里 무리기及日本諸雜貨 孔泗文
全州大正町 代書業 成鳳祚
全州大正町 代書業 金永大
全州大正町 豐南理髮館主 李鉉泰

全州郡高山面邑內里 雜貨卸小賣商 山村軍二
全州郡高山面邑內里 高山面長 崔秉玉
全州郡高山面邑內里 高山郵便所 所長 藤井發雄
全州郡高山面邑內里 朴淵相
全州郡高山面邑內里 柳小雲
全州郡高山面邑內里 俞祿濬
全州郡高山面邑內里 高山金融組合 理事 上田道太郎
全州郡高山面邑內里 金鎭永
全州郡高山面邑內里 高山公立普通學校 校長 藤谷名帥
全州郡高山面邑內里 孔準永
全州郡高山面邑內里 宋錫在
全州郡高山面邑內里 鄭萬麒
全州郡高山面邑內里 俞晧濬
全州郡高山面邑內里 高山靑年會 會長 李濟淑
東亞日報社高山分局 分局長 朴健鎬 總務 李容善 記者 金觀濟
全州郡高山面邑內里 高山靑年會
全州郡高山面邑內里 天道敎高山敎區室
金海郡市場町 金陵旅館 主 朱南順
金海郡邑內 金海殖產商會 業務委員 金在儲 朴錫憲
金海郡廳前 普信堂印刷所
金海郡廳前 金龍基自轉車店

金海郡邑內 尹成元洋靴店 金海唯一의洋靴店
金海府谷 金鍾恪
金海郡前面 張翼遠
金海郡府谷 朴秀夏
金海郡邑內 金仁昌
金海郡邑內 朴錫權
金海郡城內 朴泰坤
金海郡城內 具翰會
金海郡城內 金容浩
金海郡府谷 金斗萬
金海酒造組合 崔日
金海盆城下 金俊鎬
金海盆城下 理髮業 房鎭汰
金海長有面茂溪里 代書業 金剋洙
金海府谷 裵秉淇
金海郡城內 裵仁煥
金海鳳凰培下 盧百容
金海面外洞 裵基奭
金海郡邑內 共立印刷所
金海靑年會 會長 裵鍾哲 總務 裵昌烓
金海郡邑內 裵基哲
金海郡邑內 鄭震澤

天一旅館 主 金貞寶
金海邑內 朴秀翰
西洋貿易藥種商 商曾生堂藥房 主 裵鎭淳
金海忠武 劉聖實
金海郡邑內 日新理髮館 主 鄭鎬洙
金海郡邑內 大正理髮館 主 朴三俊
金海邑內 最新理髮館 主 李用珠
金海內洞 裵秉默
金海南門通 金陵洋服店 主 李東榮
金海邑內 鄭水曲印房
金海郡南門通 福壽堂藥房 主 梁在燮
金海郡邑內 金興旅館 主 梁贊汝
金海郡城內 林鍾翰 全泰景 盧在鎬 張洪律 朴基洪 金鳳述 李春壽
金海市場通 百貨商 金海商店
金海市場 雜貨商 朴云善
金海郡市場通 綿布 材木 セメント 石油 林學圭商店 振替小城九〇六五
金海邑內 雜貨商 金大鎔商店
附屬品雜貨商 裵河龍店
穀物 米 肥料商 朴錫權商店
物產各種貿易委託販賣部 相平號 主 朴相勳 姜平國